

2022 10
Vol. 188

문화
+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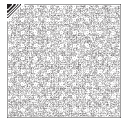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두번째달 <달빛이 흐르는 가을> (서울 스테이지11) | 콘서트 | 2022





이달의 아티스트



두번째달

밴드

—— ‘두번째달’은 2003년 상업음악을 제작하던 포스트프로덕션에서 만난 각 분야 연주자가 모여 만든 밴드다. 월드뮤직을 재해석하고 한국적 정서를 녹여내 만든 첫 정규앨범 <두번째달>(2005) 발표 이후 제3회 대한민국 대중음악상 3관왕이라는 성과를 올리며 음악 신 scene에 진출했다. 연주음악에 기반을 둔 두번째달은 특유의 감성으로 드라마, 광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친숙한 음악으로 대중의 공감을 얻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가창 아티스트와 협연하는 등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음악이 진화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명과 암, 암과 수, 선과 악 등 이분의 원리가 만연한 이 세상은 과연 실재하는 것일까? 음악이라는 예술 속에도 예외 없이 존재하는 개성과 공감이라는 양극단의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점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걸까? 우리는 늘 묻는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다. 비슷한 점 하나 찾기도 어려워 보이는 여섯 사람이 이루는 터질 듯 부푼 육각형 안에서 발견한 한 줄의 울림이 누군가의 마음에서도 공진共振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가정하건대 낮과 밤으로 양분된 세상이 달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을 중간적 성격의 시간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면, 육각형을 넘어선 초다각형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답을 찾아내는 고단함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문제는 늘 우리 사이 중간 지대의 어디쯤 위치하기 때문일 테다. 그러한 의미로 두번째달은 우리의 이름과 더불어 인간, 공감, 그리고 관계를 지향하는 우리의 몸짓이기도 하다.

큰 변화 없이 이어진 구성원의 면면은 세월을 지나 누군가의 부모, 삼촌, 이모의 역할을 맡으며 인간적 성장으로 확장됐다. 존중받기 위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깨달음은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투영됐다. 한 사람의 권력이나 재능이 아닌 관계로서 만들어지는 세상은 언제쯤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음악을 통해 정답에 가까운 오답을 찾아보고 그 결과물에 ‘두번째달’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속살이 흰히 보이는 유연한 껍데기를 선택한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두들기고, 냄새를 맡고, 귀를 대보는 것을 느끼고 싶다. 음악가로서 행복하며 자랑스러운 일이자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찾아내는 작업을 멈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Contents

2022 10 Vol. 188

커버스토리

00 — 01

이달의 아티스트 두번째달



테마 토크

사운드아트

칼럼

06 — 07

사운드아트와 사운드시케이프

리포트

08 — 11

다양한 사운드아트의 세계

현장 스케치

12 — 15

사운즈 온 쇼케이스 Sounds On Showcase 2022

인터뷰

16 — 17

전자음악 프로듀서·DJ 최영(영다이 YEONG DIE)

이슈+서울

이슈 1

18 — 21

제1회 서울문화예술포럼

이슈 2

22 — 23

202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연재인, 오니트(주)(장보영, 장영수)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장가은, 신제현)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124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트렌드+서울

문화인	24 — 29
소설가 김연수	
정연석의 서울 산책	30 — 33
용산	
공감 1	34 — 35
신당창작아케이드 오픈프로그램·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공감 2	36 — 37
〈죽심가〉와 〈스위스 취리히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서울 찰나	38 — 39

이야기+서울

지하 미감 어드벤처	40 — 41
서울을 표현하는 디자인의 세계	
최재훈의 씨니컬	42 — 43
Cine_Col: Cinema Column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멘MEN〉	
윤종강의 국악 실록	44 — 4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 공연 〈백년의 서사〉	

웹진 [비유]	46 — 47
슬픔이나 냉소보다 중요한 것	

웹진 [연극in]	48 — 49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웹진 [춤:in]	50 — 51
라시내, 유지영, 차진엽과의 대화	

10월의 서울문화매뉴얼	52 — 58
--------------	---------

편집후기	60
------	----



서울문화재단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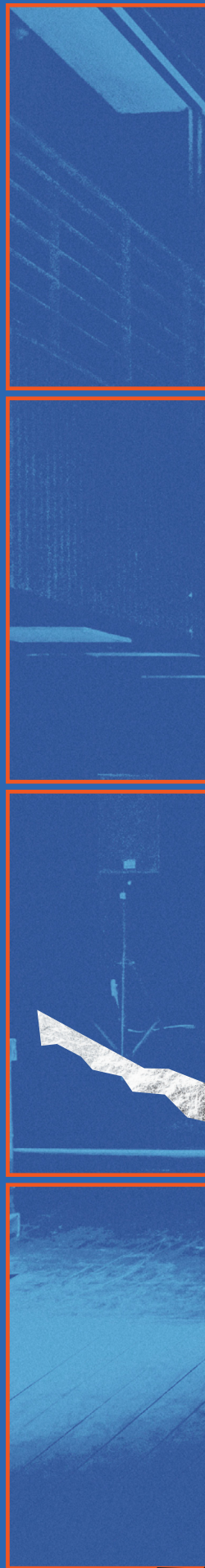
테마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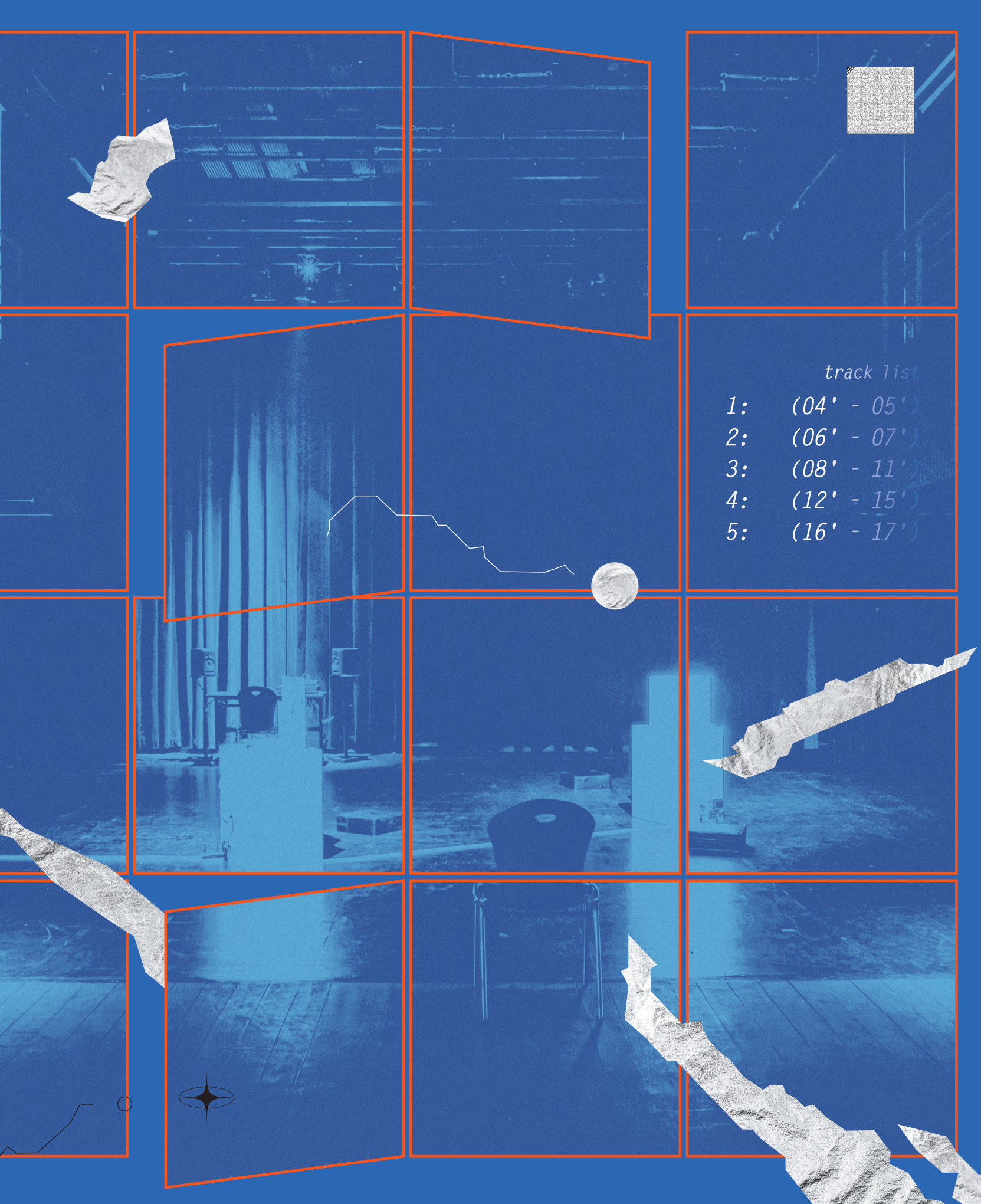
Sound Art

소리도 전시가
되나요?

사운드아트

현대 예술에서 사운드아트는 접근하기 어렵고 모호한 장르로 여겨진다.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소리를 매체로 관객과 만나기 때문이다. 듣기 싫은 소리인 소음을 예술에 들여온 것으로 시작된 사운드아트는 새로운 방식과 실험을 이어나가며 주목받고 있다. 동시대의 다채로운 사운드아트를 감각할 수 있었던 <사운즈 온 쇼케이스 *Sounds On Showcase* 2022>를 통해 소리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❶





track list

- 1: (04' - 05')
- 2: (06' - 07')
- 3: (08' - 11')
- 4: (12' - 15')
- 5: (16' - 17')

소리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사운드아트와 사운드시케이프

인간이 출생과 동시에 가장 먼저 감각하고 죽음 앞에서 마지막까지 느끼는 감각은 청각, 바로 소리다. 청각은 인간에게 가장 예민한 감각인 동시에 적극적 인지(듣기)가 없다면 가장 둔감한 감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감각기관 중 청각, 즉 소리는 예술 작품의 표현 수단이 될 수 있을까? ●

소리의 4요소 - 고저, 음색, 큰 소리, 그리고 정적

사운드아트¹ Sound Art라는 예술은 시각 매체와 같이 물성의 매체를 ‘보는’ 것이 아닌 소리를 ‘듣는’ 경험적 접근 방식으로 관객에게 다가가며 청각적 세계관이 전달하는 작품 이면의 내용을 한결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미술에서 청각 매체는 미래주의 Futurism 작가 존 케이지 John Cage와 백남준에 의해 알려진 플럭서스 Fluxus², 그리고 소리를 활용해 실험적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소니피케이션 Sonification³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해 왔다.

소리라는 매체를 예술 표현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운드아티스트 Sound Artist는 비가시적이고 무형의 형태를 작품화하는 어려운 작업 과정을 거친다. 이는 녹음기와 하이드로폰 등 특정 장비를 통해 수음되거나 생성된 음원을 스피커나 앰프와 같은 재생 장비를 이용해 전시 공간에 들리게 하고, 작품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는 구조나 형태로 재현된다. 그렇다면 소리를 예술 도구로 활용하고 표현하는 작품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

우연성 음악의 창시자이자 백남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잘 알려진 존 케이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소음과 무음의 간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어떠한 소리도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을 하게 한 예술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4분 33초>라는 작품은 과거, 사람들이 음악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소리

를 예술 표현의 재료이자 도구로 과감하게 사용하는 실험적 도전을 선보였다.

침묵으로 구성된 3악장의 연주회는 4분 33초 동안 피아노 앞에서 아무런 연주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피아니스트 너머 공연장에 흐르는 정적, 관객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려준다. 음악의 고저 Pitch, 음색 Timbre, 큰 소리 Loudness, 정적 Silence⁴을 소리의 네 요소라고 말하는 그는 “음식을 씹어 먹는 소리, 망치로 두들기는 소리도 음악적 표현과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독특한 실험성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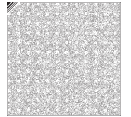
특히 사운드아트의 선구자로서 현대미술이라는 장르에 소리와 음악을 접목한 실험적 현상은 존 케이지에게 큰 영향을 받은 백남준의 작품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사운드아트는 단순히 소리를 듣게 하는 유형을 넘어 공간과 건축, 조형과 움직임, 하드웨어와 해킹, 실험적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청각적 세계관이 전달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예술적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다. ●

1 변화, 움직임, 흐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며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일어난 국제적 전위예술 운동을 말한다.

2 인간의 청각은 소리의 시간적 변화, 높낮이의 변화, 공간적 변화 등을 알아채는 데 높은 해상력을 갖고 있다. 소니피케이션은 이러한 신체의 이점을 활용해 정보를 소리의 속도와 울림과 크기 등에 매핑해 디스플레이하는 기술을 말한다.

3 존 케이지는 정적 Silence이 유일한 지속 Duration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특정 주제와 장소를 대상으로 소리를 녹음하고 공개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사운드시케이프라고 하며 그의 작품은 에미상 수상 Emmy Award-winning을 통해 세상에 더 잘 알려졌다.



사운드아트, 경계의 공간성을 넘어서는 매력

1970년대 이래 보이지 않는 전자기적 파장을 소리로 변환하는 장치와 설치 구조물을 작품화한 크리스티나 쿠비슈Christina Kubisch의 대표작 <전자기 산책Electrical Walks>은 독일 쾰른이라는 도시 공간에서 그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헤드폰을 장착하고 관객이 도시 공간을 산책하며 평소 생활환경에서 들을 수 없고 들리지 않는 비가시적 소리인 전자기적 파장을 청취하는 작품이다. 이를 통해 그녀는 당시 많은 작가와 대중에게 소리라는 매체의 예술적 확장성에 관심을 갖게 했다.

니콜라스 콜린스Nicolas Collins는 실험적 사운드와 퍼포먼스를 끊임없이 시도해 온 작가이자 사운드아트 교육 전문가다. 국내에도 한국어로 번역돼 나온 그의 저서 <핸드메이드 일렉트로닉 뮤직Handmade Electronic Music>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자기기의 하드웨어 해킹 작업, 오실레이터Oscillator를 만들어보는 과정 등을 통해 독특한 소리로 누구나 사운드아트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료지 이케다Ryoji Ikeda의 <테스트 패턴Test pattern>이라는 작품은 모든 유형의 데이터(텍스트, 사운드, 사진, 동영상)를 0과 1의 이진법 패턴과 바코드 패턴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퍼포먼스다. 2008년 이후 이러한 작품을 발표해 온 그는 독일 뒤스부르크Duisburg의 한 폐공장을 활용해 100m 길이의 프로젝션으로 투사되는 영상과 리드미컬한 사운드트랙으로 자신의 오디오비주얼 설치와 공간, 관람자의 움직임이 하나가 되는 작품을 선보였다.

도시 환경뿐만 아니라 고요함을 간직한 장소는 극히 드물다. 사운드시케이프Sound Scape 작가이자 음향생태학자Acoustic ecologist로 잘 알려진 고든 햄프턴Gordon Hempton⁴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고요한 장소를 찾아다니며 사라져 가는 자연의 소리를 녹음해 왔다.

영국 요크셔 해안Yorkshire coast에 있는 <사운드 미러Sound Mirror>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경 만들어졌다. 침투하는 적기의 소리가 오목한 거울 표면에서 반사돼 강철 기둥에 장착된 트럼펫으로 수신된다. 이러한 아날로그적 구조는 1940년대 초반

까지 전시에 소리를 감지하는 레이더가 개발되기까지 사용됐다.

지금까지 소리를 활용한 다양한 사운드아트 작품을 살펴봤다. 작가에게 소리라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예술 작업 방식은 거리가 확장되고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매력을 준다. 또한 소리는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성을 드러내기에 효과적이며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공동체의 역사적 삶의 지표를 설정해 주기에 적합하다.

필자 또한 사운드시케이프를 활용하는 작가로서 전시를 통해 특정 장소에서 채집한 비가시적 물질인 소리를 통해 관객에게 세상의 감춰진 이면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의 난지도에 만들어진 인공 공원 이면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화학적 반응 등으로 과거의 불편한 진실을 전하거나(<가공된 정원>, 2013), 남북 분단의 상징인 남방한계선 접경지역에서 채집된 자연생태계와 군사적 시그널이 전하는 분단 현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했다(<흔재된 신호들>, 2015). 소리를 매체로 하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 세상에 감춰진 이야기가 관객에게 신체적 체험으로 전달되고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



요크셔 해안에 있는
<사운드 미러>

글 김준 사운드아티스트 연세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한 후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뉴미디어를 공부했다. 국내의 특정 장소, 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존재하지만 감지되지 않는 소리를 지질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관찰하고 수집하고 재구성해 그 결과물을 사운드 아카이브 형태로 미술관에 공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 김준(kimjoon.de)

예술 매체로서 사운드

다양한 사운드아트 세계

1900년대 초 아방가르드 예술가는 클래식 음악에서 원치 않는 소리, 노이즈(Noise)를 예술의 주요한 소재로 가져왔다. 이들이 반(反)부르주아적 태도를 삶의 철학으로 삼고 비(非)음악적 소리인 노이즈의 미학적 가능성을 실험한 것이 ‘사운드아트(Sound Art)’의 시작이다. 1913년 이탈리아 미래파 화가, 루이지 루솔로(Luigi Russolo)는 ‘소음 예술 선언’을 발표한다. 그는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의 엔진 소리나 공장의 모터 소리 같은 새로운 소리, 노이즈를 만들었으며 노이즈는 클래식 음악의 예술적 지위를 넘어선다고 선언한다. 그는 소음을 내는 기계 ‘인토나루모리(Intonarumori)’를 제작해 1914년 밀라노에서 ‘도시의 각성’ ‘자동차와 비행기의 만남’ 같은 곡을 발표한다. 당시 작곡가들은 기계 자체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그 음악적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한 탓에 이 기계는 사라지게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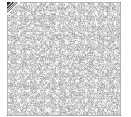


엘리안 라디크

사운드아트, 간략한 역사

1955년 10월 도쿄 오히라 회관에서 제1회 〈구타이 미술전〉이 개최됐다. 전시에는 최초의 사운드 조각 작업 중 하나인 다나카 아쓰코(田中敦子)의 〈작업(종) Work(Bell)〉이 있었다. 작가는 전시장 바닥에 2m 간격으로 20개의 전자 종을 놓았다. 관객이 버튼을 누르면 종이 차례로 울리기 시작한다. 사운드는 시작점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며, 공간을 음향적으로 감각하게 한다. 다나카는 이 작업을 “소리로 공간을 그리는 풍경화”라고 말한다. 이는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Interactive) 작업의 초기 형식이 된다.

1960년대 사운드아트는 단순하게 새롭기에 핫한 매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며 운동이었다. 반(反)문화와 혁명의 정신으로 당시 예술가들은 상품화하거나 수집하기 어려운 무형의 예술, 아름다운 음악이 아닌 불협화음의 노이즈를 실험하고 있었다. 반(反)예술, 무정형 예술의 영역에서 자본 밖 예술의 최전선을 탐구했다. 사운드아트는 예술이 갖는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매우 드문



장르로 이해받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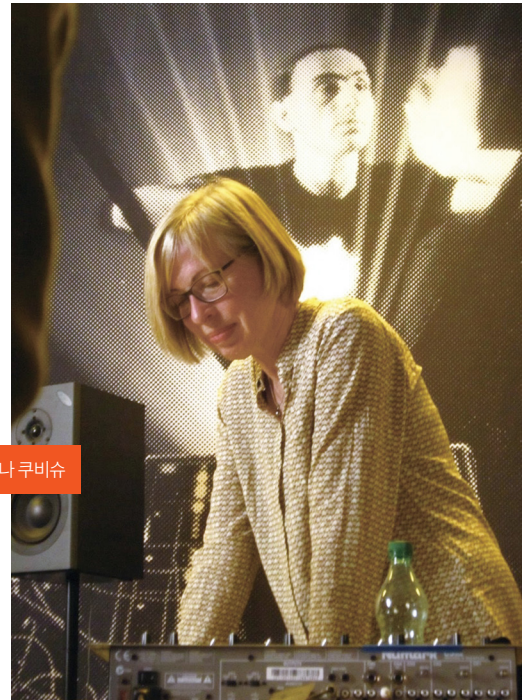
프랑스 국립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피에르 세페르(Pierre Schaeffer)는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소음으로 작곡한 자신의 음악을 '구체음악(Musique concrète)'이라 부르기 시작한다. 그는 1948년 파리 바티올 역에서 녹음한 다양한 기차 소리를 변형해 만든 곡 '철도 에튀드'를 라디오로 방송한다. 추상적 소리를 악보로 그리는 클래식 작곡 기법과 대비되는 구체적 녹음소리,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작곡한다는 의미다. 악기 연주나 연주자가 전제 조건이던 종래의 작곡 방식을 뛰어넘어 소리 자체와 소리를 합성하는 방법에 따라 음악이 구성되는 새로운 작곡 형태를 보여준다. 자기 테이프를 사용해 음악을 만든 최초의 작곡가로, 그의 음악은 샘플링에 기반하는 전자음악의 시작으로 인정받는다.

청각 문화 대부분이 대중음악으로 포섭된 1990년대 이후, 사운드아트는 청각 문화의 예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운드아트라는 예술 장르는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원리, 관객의 미감을 획일화하려는 정치적 의도, 무비판적 수용을 강요하는 시장체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사운드아트는 현대 예술 장르에서도 가장 비(非)상업적이며 반(反)문화산업적 매체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

사운드아트, 실천

서양 클래식 음악 작곡가의 역사는 '남성 작곡가'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여성 사운드아티스트(Sound Artist)의 작업을 재평가하고 새롭게 주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인물이 엘리안 라디그(Éliane Radigue, 1932~)다. 1950년대 이후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엘리안 라디그는 2000년대까지 주로 신시사이저 음악을,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어쿠스틱 사운드 제작에 주력해 오고 있다. 아날로그 신시사이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느린' 사운드를 연출한 1970년대 이래로 어쿠스틱 사운드 작업을 해왔다.

그의 대표작 <바이오제네시스(Biogenesis)>에서 라디그는 아들을 임신했을 때와 딸이 첫 손주를 임신했을 때 태아가 움직일 때 나



크리스티나 쿠비슈

는 소리를 녹음한 사운드를 활용했다. 청진기와 마이크, ARP 신시사이저만을 사용해 맥박과 심장의 박동을 소재로 <바이오제네시스>를 작곡했다. 작업의 제목인 <바이오제네시스>는 '생물속생설'을 말한다. 이는 신이 생물을 창조했다는 '자연발생설'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살아 있는 생물은 반드시 살아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론이다. 라디그는 말한다. "저의 작곡은 언제나 극적 변화를 피해 왔으며, 이는 여전히 제 작곡의 규칙입니다. 모든 음은 매우 느리게 변화합니다. 음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느리게 전개됩니다."

크리스티나 쿠비슈(Christina Kubisch, 1948~)는 독일 사운드아티스트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회화와 음악, 전자공학을 수학한 뒤 베를린을 중심으로 유럽 및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로 1970년대의 퍼포먼스, 공연 및 미디어 작업을 선보이며 자외선을 이용한 사운드 설치 및 조각 작업을 해오고 있다. 2008년 독일 사운드 아트 어워드에서



1

디지털 음악 부문 명예상을 수상했다.

그의 대표작 〈테슬라의 꿈 *Tesla's Dream*〉은 19세기 악기인 아르모니카 소리와 오스트리아의 옛 기차역에서 녹음한 자기장 소리로 시작한다. 이어서 브라티슬라바의 옛 타트라 전차선로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전자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테슬라¹의 기기가 내는 사운드가 함께 연주된다. ●

사운드아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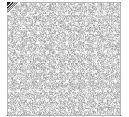
2007년 시작한 〈사운드 이펙트 서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국제 사운드아트 페스티벌이다. 현대미술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바루흐 고틀립과 필자가 함께 2019년까지 총 6회의 〈사운드 이펙트 서울〉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많은 국내의 사운드아티스트를 서울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시각예술가, 미디어아티스트, 행위예술가, 현대음악가, 일렉트로닉 뮤지션, 문학가, 정치학자와 문화비평가 등 다양한 문화 실천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벌여왔다.

한국에서는 K-POP 음악으로 대표되는 대중음악이 일상 속 듣기 문화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서울에서 사운드아트는 문화 상품이 아닌 듣기 문화를 구축하고자 제 영역을 확장해 왔다. 문래예술공장에서는 수년간 ‘음악·사운드아트 특화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운드아티스트의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사운드아티스트입니다’라는 뜻을 지닌 사운드아티스트 페스티벌 〈WeSA〉는 사운드아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아티스트 간의 네트워킹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사운드아트 교육 프로그램, 레지던시, 페스티벌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11월 12일 토요일 성동구 OHHO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WeSA〉 누리집 wes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8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리

¹ 작가는 현대 전기 문명의 근간인 교류 전기 시스템과 무선통신 등을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에 매료돼 관련 소재로 작업했다.



2

는 <도시공명>은 도시를 듣기 행위로 인지하는 전시다. 참여 작가 중 한 명인 권병준은 1990년대 인디밴드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이후 헤이그왕립음악원에서 음향학을 전공했다. 이 전시에서 권병준은 관객이 헤드폰을 쓰고 각기 다른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야외 공간을 거니는 작업을 소개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장소 특정적 소리를 들으며 주변의 평화로운 경관과 대비되는 긴장과 불안 같은 다양한 감정을 환기시키는 사운드 작업이다. 또 다른 사운드아트 전시인 김희천·이옥경의 <월드 기억>이 백남준아트센터에서 11월 20일까지 열리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내년 2월 26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 <다다익선: 즐거운 협연>이 백남준의 '다다익선(1988)'을 대대적으로 복원해 다시 켜는 것을 기념해 열린다. 음악감독 장영규가 백남준이 직접 연주한 곡을 한국 고전설화의 주인공 심청과 춘향의 심경에 비유한 사운드 설치 작품 '휘이 땡으르르르 어형'으로 소개한다. ●

글 양지윤_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 사진 제공 양지윤



1 : 2018년 진행한 이오아나 브레메 모저의 <코케타Coquette>(사운드 이펙트 서울)
2 : 2021년대안공간 루프에서 진행한 권병준의 사운드 작품 <간결한 생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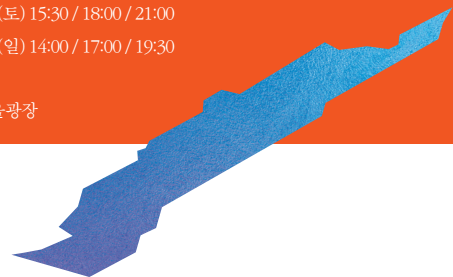
서울거리예술축제 2022 : <너에게, 나에게 듣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모든 의사소통을 문자로 하는 것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에게는 타인과 전화, 즉 '목소리'로 직접 소통하는 일은 두려움 자체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선보이는 사운드아트 작품 <너에게, 나에게 듣다>는 배경 사운드 위에 순차적으로 기록된 목소리가 다양한 시간 위에 삽입돼 때때로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며 새로운 사운드를 만든다. 이 사운드는 8개의 스피커로 서울광장 내 '테라바그, 서울' 안에서 울려 퍼진다. 참여자는 레트로 무전기 마이크와 오디오 신호처리 임베디드 시스템을 결합한 녹음 장치에 10년 후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목소리로 남긴다. <너에게, 나에게 듣다>를 통해 유니크한 자신만의 목소리로 나를 찾고, 혼자자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다. ●

관람시간

9월 30일(금) 14:30 / 16:30 / 21:00
10월 1일(토) 15:30 / 18:00 / 21:00
10월 2일(일) 14:00 / 17:00 / 19:30

장소 서울광장



소리의 물질적 가능성에 대하여

사운즈 온 쇼케이스 *Sounds On Showcase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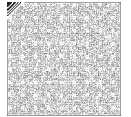
〈사운즈 온 *Sounds On*〉은 사운드아트 분야에서 독창적인 질문을 탐구하는 창작자, 기획자, 연구자, 비평가 등을 발굴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이다. 올해 발표 지원에 선정된 서민우·오명석·최영과 초청작가 이옥경은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문래예술공장에서 진행된 〈사운즈 온 쇼케이스 *Sound On Showcase 2022*〉를 통해 소리와 청취에 대한 각기 다른 예술적 실험을 다양한 형태로 선보였다. 국내 최신 사운드아트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쇼케이스 현장을 소개한다. ❶



소리에 물성 부여하기

사운드아트 *Sound Art*는 미디어아트의 영역 아래 사유되며 타 장르에 비해 접근이 어려운 예술로 일컬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운드아트는 소리 자체를 주 매체로 활용하기에 조형적 특징을

가진 타 장르에 비해 감상적으로 해석되기 쉬운 여지가 있고, 또 소리라는 비물질에 대한 접근은 열린 가능성을 담보하기에 다소 느슨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운드아트는 비옥한 토양을 형성하기에 어렵다고 여겨지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파생하며 특정 장르로서의 성격을 견고히 하여 확장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운드아트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실험 음악 혹은 구체음악에서 출발한 사운드아트는 소리의 작동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던 기존의 활용과 분석을 넘어 새로운 수행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이번 <사운즈 온 쇼케이스 Sounds On Showcase 2022>의 특이점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현장 스케치를 위해 방문한 쇼케이스에서 서민우의 '이어캐비닛^{earcabinet}'과 오명석의 '감각과 발견: 팔음^{八音} 놀이터'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전자음악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 예상한 바와 다르게 이들은 사운드라는 미디어를 다원적 차원에서 풀어내고 있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소개한 작품은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한다고 이해하던 최근 국내 사운드아트의 흐름을 역행해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회귀하는 과정과 실천을 엮어내고 있었다.

서민우와 오명석은 소리에 물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들은 비단 소리의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 그것이 어떻게 전시장에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듯 보였다. 이는 오디오-비주얼을 필두로 한 최근의 사운드아트가 추구하는 기술 기반의 성격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두 작가는 소리가 가진 비물질의 성격을 다시금 물질로 포착함으로써 가능한 변주를 보여줬다. 소리 그 자체에 대한 인식, 그것의 발생에 대한 사유, 그리고 이를 형상 안에 위치시키는 단계에서의 왜곡과 변형은 이들의 사유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 전시장의 작품은 소리가 가진 시간과 공간의 역학을 구조적으로 펼쳐내고 있었는데, 마치 악기와 같은 조형이 하나의 양상불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기 다른 소리를 발산하고 있었다.

이번 쇼케이스는 주변의 스케이프를 활용해 공간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소리를 다시 포착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작품이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 예컨대 그것이 배치되는 거리나 순서에 대한 계산은 마치 공간을 구획된 악보처럼 활용하는 듯 보였다. 이에 따라 관객은 작가가 설계한 공간의 문법을 따르고, 또 역행하며 능동적으로 소리를 감각한다. 이때 소리는 그 조형 안에 머물지



1: 서민우, '이어캐비닛^{earcabinet}', 2022, 음반 설치, 가변크기, 53min
2: 오명석의 '감각과 발견: 팔음^{八音} 놀이터'

않고 주변 환경과 공명하기에 관객으로 하여금 시시각각 달라지는 소리 자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그 성질을 되돌아보도록 이끌었다. 두 작가는 소리를 발생하게 하는 재료의 성질과 매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리를 다른 방식으로 소화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소리를 물질적 차원의 층위로 끌어올려 그 위상을 다시금 현현하게 한 것이다. ●

오명석의 '감각과 발견: 팔음^{八音} 놀이터'

문화예술기획자 조한결과 테크니컬 아티스트 김휘성이 함께한 오명석의 '감각과 발견: 팔음^{八音} 놀이터'는 전통악기에 활용되는 여덟 가지 자연 재료를 전통음악의 '8음 분류법'으로 연결한다. 여덟 가지 재료는 쇠붙이, 돌, 실, 대나무, 바가지, 흙, 가죽, 나무로 각각의 물성은 공간을 가로지르며 일종의 악보를 구성한다. 이들은 전통 정원의 문법을 차용해 정원 입구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을 마주하게 되는 선형적 경험 방식을 따르며 작품을 배치한다. 그러나 여기서 변수로 등장하는 것은 '관객의 개입'이다. 관객은 본인이 마주하는 작품을 직접 만지고 두드리며 소리를 내는데, 그 과정에

서 이들은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우연한 선택에 따른 비선형적 연주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작곡가가 의도한 순서가 아닌 개별 청자가 의도한 대로 음악을 펼쳐낼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발견 가능한 재료가 제공하는 청각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 각 물성이 촉발하는 소리의 발산 방식과 공명, 그리고 이를 감각하는 주체로서 관객의 능동적 행위가 순환적으로 펼쳐지며 소리의 시간적·공간적 성격을 해체하고 재매개했다. ●

서민우의 ‘이어캐비닛^{earcabinet}’

서민우의 쇼케이스 ‘이어캐비닛^{earcabinet}’의 연계 행사로 진행된 음감회 ‘스테레오 방목하기’는 ‘공연장에서 스테레오 환경은 항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즉 완벽한 청취를 위한 환경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가정에서 시작한 실험적 퍼포먼스다. 공연의 시작을 알린 앨빈 루시어^{Alvin Lucier}의 음악 ‘I Am Sitting In A Room’(1969)은 특정 공간에서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를 반복해 본래 음을 없애며 공간을 뒤흔다. 소리는 곧 공간 자체의 특징 주파수로 대체돼 알아들을 수 없게 변형된다. 이번 작업을 은유한 퍼포먼스는 40분간 진행됐으며 스테레오 시스템의 좌우를 뒤틀어 공간을 재감각하도록 만들었다. 공연에 사용된 여섯 편의 음악

은 공연장 내 스테레오 환경을 적극 활용하거나, 양쪽 청각의 혼돈을 초래하거나, 좌우 변주를 통해 공간감이 넓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구성됐다. 물병과 마이크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해 질감을 살린 소리는 현장에 울려 퍼지는 소리와 합성돼 공간 속 스테레오 환경을 완벽히 감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어캐비닛’ 음감회는 구조적으로 설계된 환경 안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며 중첩하는 사건을 암시하고 있었다.

소리를 다시금 사유하기

이번 쇼케이스를 준비한 두 작가는 사운드 조각, 그리고 공연에 사용되는 악기로서의 오브제를 통해 소리를 다시금 사유할 것을 유도했다. 특히 비물질의 소리를 물질로 포착하고자 한 시도는 이후의 사운드아트가 제시할 변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변의 재료를 활용해 보이지 않는 매질을 시각화하고, 설계된 공간을 통해 어떤 것이 ‘경험 가능한’ 소리인지 드러내고자 한 시도는 그다음을 기대하도록 만든다. 이들의 실험은 기존의 실험음악 혹은 구체음악에서 파생된 흐름이 차용해 오던 특정 문법을 벗어나 사운드아트가 택할 수 있는 속성 중 일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글 문현정 기획자 | 사진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음악·사운드아트 특화사업 <사운즈 온 쇼케이스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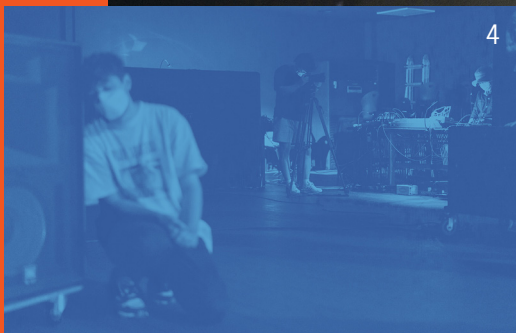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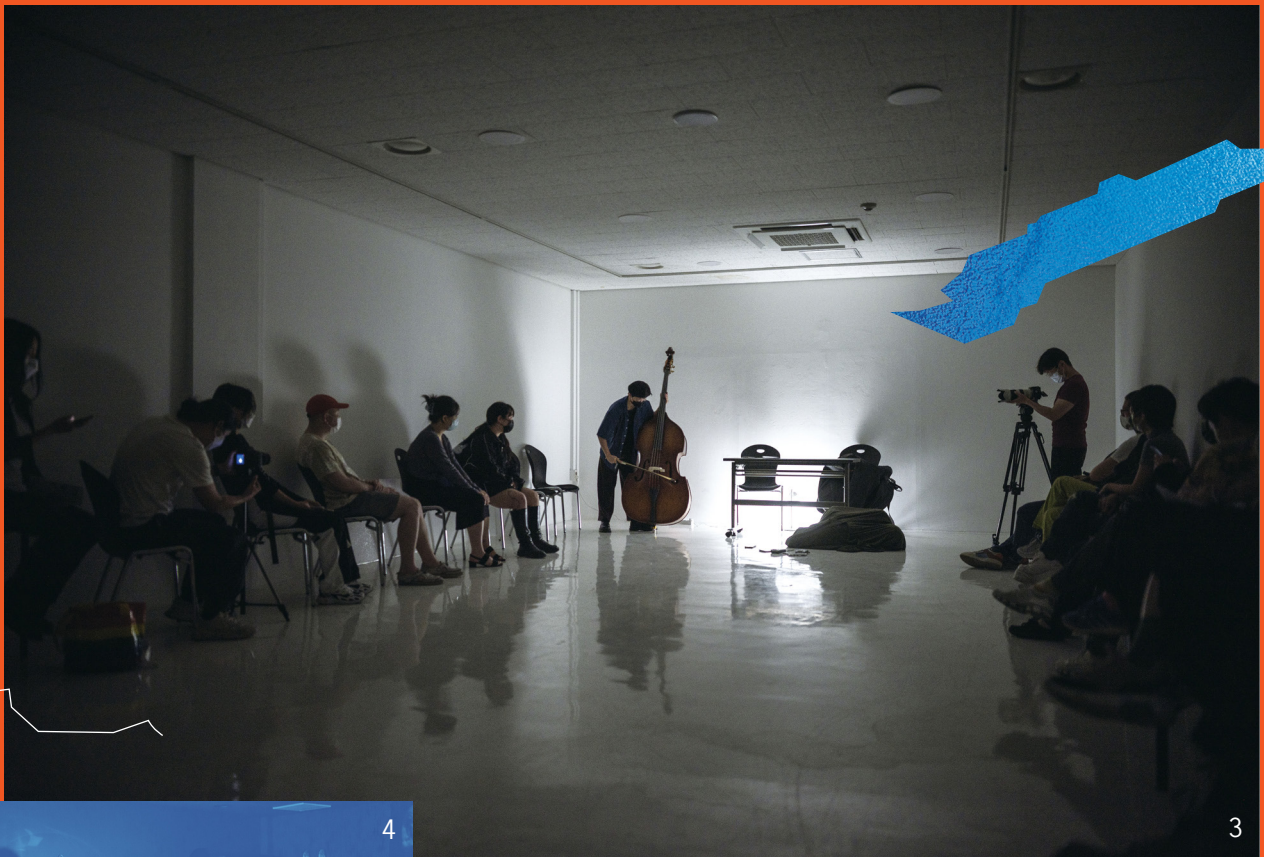
쇼케이스 선정작

서민우 〈이어캐비닛 ^{earcabinet} 〉	전시	9월 16일(금)~22일(목)
	공연	9월 17일(토), 18일(일)
	음감회	9월 16일(금)
오명석 〈감각과 발견: 팔음 八音 놀이터〉	전시	9월 16일(금)~24일(토)
	관객 참여 워크숍	9월 17일(토), 20일(화), 22일(목)
최영 〈だいたい 다이다이 Vol.4 (Jam Session)〉	공연	9월 24일(토)
	아티스트 토크	9월 24일(토)
초청공연		
이옥경 〈실풀이 ^{Silpuri} 〉		9월 23일(금)
이옥경 〈즉흥 ^{Improvisation} 〉		9월 25일(일)



3~5:
서민우의 ‘이어캐비닛^{earcabinet}’과 이어지는 음감회
‘스테레오 방목하기’의 전경. 김은지, 주윤탁, 조승호와 합연해
공연으로도 선보였다.

track list
(12' - 15')



카테고리화가 되지 않는 하나의 사운드, 영다이

전자음악 프로듀서·DJ 최영(영다이 YEONG DIE)



지난 9월 24일 오후 5시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에서 열린 <사운즈 온 쇼케이스 Sounds On Showcase 2022>를 통해 최영은 B2B 플레이를 앙상블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일반 디제잉 공연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색적인 음악을 들려줬다. <だいたい 다이다이>는 2019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최영의 디제잉과 음악감상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로, 전시나 공연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전자음악 프로듀서이자 DJ, 나아가 음악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최영, 영다이 YEONG DIE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Q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2년 가까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겪었는데 최영 님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해요.

A 올해 초 두 달 정도 유럽 투어를 다녀왔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유연해진 시점에 귀국했고 예술계 역시 다시 활기를 띠는 분위기 속에서 사운드 작업, 공연, 디제잉 등을 병행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코로나19 시기에 오히려 더 분주하게 보냈어요.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스트리밍 라이브 공연 <CENTERS(중심들)>를 기획했고, 3D 게임 <Quarantine Études>을 제작했으며, 개인 앨범을 연달아 발표했고, 프로젝트팀 '컴퓨터 뮤직 클럽 Computer Music Club, CMC'도 만들었습니다.

Q 최영이 본명이 아닌 활동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최영, 영다이 YEONG DIE인가요?

A 일단 최영 장군의 이름을 따갔요.(웃음) 이후 영어 이름의 성을 좀 특이하게 표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선택한 것이 'DIE'였어요. 이름에 DIE(죽음)를 잘 쓰지 않으니까요. 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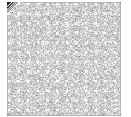
영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느끼는 건데, 죽음의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DIE도 그저 글자이고 발음인 거죠. <だいたい 다이다이>는 디제잉에 대한 저의 개인 연구 프로젝트인데요. 디제잉의 기본 개념이 두 곡을 맞붙이고 연결하는 것이어서 '다다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최영은 2018년 첫 앨범 <PIZZAPI>로 데뷔한 이후 해외 레이블과 연이 닿아 음악 발표를 하나둘 시작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미술작가들과 협업할 기회가 많았다. 이를테면 전시장에 틀어줄 음악을 만들어달라는 제안, 혹은 이미 발표한 그의 음악을 전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제안 등이었다. ●

Q 스스로의 정체성 중 하나로 비주얼리스트를 꼽고 계신데요. 음악과 비주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맺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A 일종의 목표이고요. 대중음악 시장의 상황만 보더라도 음악과 비주얼은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이제는 음악의 질만큼이나 '음악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졌으니까요.

Q 비주얼리스트로서 '음악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미술작가들과 한 협업 등이 작가님의 사운드 작업에 미친 영향일까요?

A 그 고민은 욕구를 동반하는 것 같아요.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요. 사실 미술작가들과 협업하기 이전부터 마음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DJ 봉준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영화 DVD 패키지로 믹스 테이프를 만들어 판매해 보기도 하고, 사진 집이나 단편소설의 형태로 작업을 선보인 경험도 있거든요.

디제잉과 더불어 최영의 음악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전자음악이다. K-POP 역시 전자음악의 프로듀싱 방식으로 제작되는 등 전자음악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전자음악을 여전히 난해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 ●

Q 전자음악의 매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전자음악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양상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음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제잉도 기본적으로는 다 같이 모여 즐기고 춤추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니까요. 향유하는 데에는 허들이 낮다고 볼 수 있어요. 클럽의 분위기가 어색하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클럽음악에 흥이 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웃음)

Q 지난 9월 24일에 문래예술공장에서 진행한 <사운즈 온 쇼케이 스 2022> 공연은 어떠셨나요?

A <だいたい 다이다이> 프로젝트의 네 번째 작업이었는데요. 이번 에 처음으로 디제잉 기기를 사용해 봤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일부러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제잉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시도이기도 했고, 이로써 한 단락이 끝났다는 느낌도 들어요. 공연 후 토크 세션을 진행했는데 제가 다방면으로 작업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객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질문해 주셔서 용기도 얻고 좋았습니다.

Q 음악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알려주세요.

A 카테고리화가 되지 않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제 음악의 핵심이 '익숙한 것들로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스꽝스럽고도 슬픈 것, 무섭지만 끝까지 보고 싶은 것을 만들고 싶달까요. 향후 전신 음악과 퍼포먼스 음악 작업으로 찾아볼 예정이에요. 연말이나 내년 초 어쨌든 '컴퓨터 뮤직 클럽 *Computer Music Club, CMC*'의 릴리즈 소식이 있을 것 같네요.

카테고리화가 되지 않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 최영은 믹싱과 스크래치 같은 기술을 통해 즉흥적으로 음악을 재조합하고 가공하며 재창조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시도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다. 가끔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청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뮤지션으로서 자신의 위치(장르)가 애매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있다. ●

글 장보영 객원 기자 | 사진 이차령 | 사진 제공 최영





제1회 서울문화예술포럼 현장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탐색하는 장

제1회 서울문화예술포럼

—— 제1회 서울문화예술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문화예술 전망과 서울의 문화전략’을 주제로 9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소속 아트위캔 플루트 앙상블과 박혜연 소프라노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소개처럼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공연으로 포럼을 시작해 더 의미가 컸다.

포스트 코로나 문화예술 전망과 서울의 문화전략

행사는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과 포럼 공동회장인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장의 개회사로 본격 시작됐다. 포럼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여러 예술단체 및 협회의 대표와 장르별 예술가, 김규·문성호 의원 등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 그리고 일반 시민 참관자에 대한 환영의 말이었다. 박상원 이사장은 포럼 공동회장으로서 “서울문화예술포럼이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고, 최태지 공동회장은 “예술가가 외롭지 않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포럼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포럼 출범 축하 인사를 통해 품이 더 넓은 문화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서울문화예술포럼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대표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 문화정책의 방향을 소개하며 포럼에 참여한 이들이 함께해 주기를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공모





오세훈 서울시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최태지 전
국립발레단장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전재명 서울시
문화정책과장나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조용민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본부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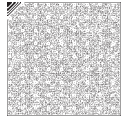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의 미래 가치를 탐색하는 서울문화예술포럼

목표	문화정책 이슈, 문화예술의 미래 가치를 위한 문화예술 담론 형성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전문가 교류 협력 및 가버넌스
운영 방향	기후 위기 및 ESG·일상 속 문화 향유·다양성·예술창작 생태계·4차 산업혁명·초연결시대의 문화공간 등 다양한 주제로 정례 포럼 개최
	각 분야의 예술가·문화기획자·전문가 다수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미래지향적 아이디어를 폭넓게 제시
일정	2022년 9월 - 서울문화예술포럼 발족 및 제1회 포럼 개최 (주제: 포스트 코로나 문화예술 전망과 서울의 문화전략)
	2022년 12월 - 제2회 서울문화예술포럼 개최(주제 미정)
	2023년 - 운영위원회 확대, 정례 포럼 개최

와 심사 방식 위주로 진행된 그동안의 예술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이 문화 발신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포럼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에 부응할 문화 예산 확보 약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노력에 대한 지지도 부탁했다.

포럼 2부에서는 손수연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 발제와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문화예술 전망과 서울의 문화전략'을 주제로 전재명 서울시 문화정책과장과 나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제가 이어졌다. 전재명 과장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문화예술 전략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2030년까지 세계 5대 문화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설정한 ①디지털 감성문화 도시 ②시민문화 향유 도시 ③2000년 역사 도시 등 서울시의 3대 문화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소개했다. 발제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자 질문에 답하며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성황리에 진행 중인 '공연봄날', 향후 도입 예정인 청년문화패스 등 문화생활 약자를 위한 사업과 온라인 박물관 등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책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나도삼 위원은 '뉴노멀 시대, 시민행복과 서울시 문화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등 서울시 문화정책이 당면한 시대적 이슈를 진단하고, 민선 8기 서울시 문화정책을 위한 9대 의제를 제안했다. 나도삼 위원은 약자에게 쏠리기 마련인 위기 상황과 더불어 15분 도시를 선언한 파리 등 일상 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세계 도시의 동향을 소개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서울시민 1,2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①디지털 문화 역량 강화와 격차 해소 ②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다양성 구현 ③예술을 통한 문화돌봄 구현



등 9대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나도삼 위원은 9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넷제로^{Net-zero} 시민문화’에 대한 시청자 질문에 답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아직 기후 위기가 체감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공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시민참여 행동 유발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의 미래를 위한 언바운드^{Unbound} 관점

주제 발제 후 ‘문화예술의 미래와 경계를 넘나드는 언바운드 관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조용민 실장(구글 커스터머 솔루션본부)의 초청 강연이 이어졌다. 그의 강연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속에서 문화예술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관점을 짚어주는 격식 없는 이야기였다. 그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위해 경계를 넘나드는 언바운드 관점으로 결합된 기술의 감동적 사례를 소개했다. 다섯 살에 즉위한 후부터 남긴 많은 신체 데이터를 활용해 루이 14세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프로젝트, 저화질 원본 이미지로 고화질 이미지를 예측 생성하는 인공지능 등은 첨단 기술일지라도 어디엔가 이미 개발돼 있는 것 같은 기시감을 준다.

반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함으로써 주목도를 높인 옥외광고판처럼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혁신 사례도 있다. 이를 통해 조용민 실장은 폭발적으로 진보하는 기술에 비해 맛있는 기술기로 증가하는 인간의 기술 수용력, 그 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친화적인 서비스’ 설계, 신규 프로젝트의 본질적 목표를 찾아가기 위해 던지는 ‘최소 다섯 개의 Why’는, 결국 ‘관점 열어두기’를 통해 실현 가능한 혁신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패션쇼에서 드론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기획은 ‘패션쇼 기획자’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아야 가능한 전환이다.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3-D 프린팅으로 만든 입체 졸업앨범은 앨범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답임교사의 근원적 질문 던지기^{Find Right Why}가 만든 감동이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초기화면만 봐도 그 사람의 취향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AI에 의한 초개인화 서비스는 이제 너무나 폭넓고 당연히 사용되고 있다. 조용민 실장은 신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사용자 경험을 바꾸고 새로운 감동을 주도록 기획하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정작 문화예술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받아들이며 감동의 임계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기술뿐만 아니라 시민, 다른 예술을 향한 관점 열기가 필요한 때다.

지난 6월 운영위원 준비 회의를 통해 이번에 공식 출범한 서울문화예술포럼은 서울 문화정책의 관점 열기를 이어간다. 올해 12월에 열릴 2차 포럼에 이어 내년까지 ‘기후 위기 및 ESG와 문화예술’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시대의 문화공간’ 등을 주제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담론의 장으로 더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글 김해보_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 사진 서울문화재단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소속 아트위캔 플루트 앙상블의 축하 공연

내년 예술지원, 어떻게 변화되고 개선되나?

202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 202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공모 접수가 10월 4일 시작된다. 올해는 예술인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위해 예술지원의 경력 단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 및 개선했고, 예술인이 365일 활동할 수 있도록 공모 시기는 지난해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겼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방향 및 체계

2020년 서울문화재단은 지원사업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재단 내부 및 예술계 의견을 반영해 기존 예술지원 구조를 큰 폭으로 재설계해 ‘2020년 서울예술지원’ 개편안을 발표했다. ‘창작 주체인 예술인 중심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라는 기조 아래 지원 대상을 작품이 아닌 예술인 중심으로 변경해 경력 단계별(A트랙-신진, B트랙-유망, C트랙-중견) 공모를 진행했으며, 결과 발표에 한정하지 않고 창작 과정 및 예술 기반 지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서도 전제적으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22년 현재, 서울뿐만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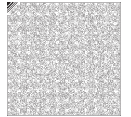
라 다른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에서도 창작 과정 및 예술 기반 지원사업을 널리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술계에서도 그 필요성과 유효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2023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변화 및 개선 내용

지난 9월 30일 공고된 ‘202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또한 ‘지속가능한 안정적 창작환경을 위한 지원’이라는 기조 및 지원사업 구조의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2023년 예술지원사업’에서는 현장적합성, 편의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원제도를 더욱 보완했다.

지난해 대비 달라진 점으로는 첫째, 시기가 각기 다르던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해 예술인의 정보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의 1, 2차 서울예술지원에 해당하는 ‘예술창작지원’ 및 ‘예술기반지원’에 더불어 ‘창작공간 입주지원’ ‘특성화 지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 등 재단 내 주요 예술지원사업도 시기별로 묶어 두 번에 걸쳐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예술인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 눈에 쉽게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1차 공모는 지난 9월 30일 공고됐으며, 10월 13일 시민청 태평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차 공모는 2023년 1월 중 공고된다.

둘째, 공고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결과 발표 시기 또한 한 달가량 앞당겨 연초부터 작품 활동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예술인플랜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1년 내내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시기 조정’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기 공모 및 발표를 통해 하반기 6개월에 사업이 물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술인이 연중 원하는 시기에 예술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셋째, 청년·원로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기존의 신진(A트랙)-유망(B트랙)-중견(C트랙)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에 더불어 청년·원로 트랙을 신설해 예술인의 '활동경력'과 '생애주기'를 모두 고려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입이 더욱 어려워진 시작단계의 예술인과 경력은 많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활동 기회가 줄어든 원로 예술인 등 예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공공의 지원이 창작 준비-제작-발표-확산-향유로 선순환되도록 올해 시작한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과 '서울예술상' 등 확산단계의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간다.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은 지원사업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홍보를 지원해 미선정 예술가의 활동을 촉진하고 더 많은 서울시민이 창작 결과물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기획됐다. '서울예술상'을 통해서도 한 번의 작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작품이 국내외 예술계에서 계속해서 조명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은 재난 상황이나 연령, 경력 등의 조건으로 예술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고 예술인이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 현장과 소통해 현장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다양한 예술 언어가 서울의 현재 삶을 반영하고, 때로는 현재의 경계와 시간을 뛰어넘어 이상적 미래의 삶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창작-향유의 선순환을 통해 예술과 서울시민의 일상이 한층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

글 김수현_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실장 | 사진 서울문화재단



지난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설명회 현장. 올해는 10월 13일 시민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

공모	지원 영역	지원사업	지원내용	공고시기
1차 공모	예술창작지원	예술창작활동지원, (A트랙/B트랙/C트랙) (문학 첫책발간지원/창작집 발간지원)	예술 장르별, 경력 단계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022.9.30. (사업별 신청 시기 상이)
		[신규]청년예술지원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의 첫 작품 발표 지원	
		[신규]원로예술지원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	
	창작공간 입주지원	서울장예예술창작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서울무용센터	시각예술·공예·디자인 분야 작업실 지원 문학 분야 레지던스 지원 무용 분야 레지던스 지원	
2차 공모	예술기반지원	RE-SEARCH, 창작예술공간 지원, 예술전문서적 발간 지원 시각예술작품집, 우수예술 작품 기록 지원 등	※ 세부 내용 추후 공지	2023.1. 예정 (사업별 신청 시기 상이)
	특성화지원	거리예술 지원, 서울메세나 지원, 인디음악 지원, 유망예술 지원, 장애인 창작활성화 지원 등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	서울시민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로 소통하는 일상적 참여를 위한 서울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재설계중)		

※10월 13일 사업설명회 일정, 사업별 세부 내용 및 신청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일정과 내용은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일 달리는 작가,
이야기를 짓는 작가

소설가 김연수

— “세상의 일을 이해하는 건 이유 없음을 받아들이는 일.”

태풍이 지나간 고요한 일산 호수공원에 김연수가 서 있었다.

간밤에는 도시를 날려버릴 듯 거센 바람이 불었지만 거짓말처럼 눈부신 햇살이 내리쬘고 있었다.

여름과 가을에 각각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은 소설가는 이제 숨을 고르고 있다.

이번 가을은 이 소설가에게 특별한 계절로 기억될 것이다. 49쇄를 찍고 18년 만에 개정판으로 돌아온 김연수의 가장 사랑받는 에세이《청춘의 문장들》, 그리고 9년 만에 묶은 소설집《이토록 평범한 미래》가 연이어 나왔다.

1993년 시로 등단한 이후 20여 권의 책을 내며 읽고 쓰는 삶을 살아온 그에게는 잠시나마 쉽표 같던 지난 3년이었다.

호수공원 인근 카페에서 두 권의 책과 그간의 시간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그에게 손으로 글을 쓰는 노동과 다리의 힘으로 달리는 일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았다.

다시 달리게 된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글을 쓰게 된 것. 두 가지 루틴이 코로나19 시대를 견디게 한 원동력이었다.

코로나19 시대를 이기게 한 힘

전염병의 시대는 소설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물었다. 특히나 동시대의 아픔에 대해 예민하게 기록해 온 김연수라면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시대가 시작되고 적응이 잘 안돼서 글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생활도 좀 틀어진 느낌이었고요. 이 또한 코로나19 때문일 텐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 뭘 막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글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되게 묘하게 같이 가는 게, 달리

기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관심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예전에 비해 답답하다거나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이런 욕망은 거의 없어졌어요.”

여행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지만 요즘의 그를 즐겁게 떠나게 만드는 소소한 여행은 존재했다. 바로 전국의 도서관을 찾아가는 ‘도서관 기행’. 도서관 사서들이 만드는 웹진에 청탁을 받고 그는 지방 시립도서관 탐방기를 한 달에 한 번 쓰고 있다. 항상 작가로서 초대받다가 지나가는 여행자로 도서관을 찾으니 새로운 것이 보였다.

“이 소소한 여행은 책의 발견에 가깝더라고요. 흥미가 생겼어요. 지방 도시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도시마다 도서관이 있다는 것, 거기 가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책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졌고, 바닷가에 있는 도서관, 숲속에 있는 도서관 등 정말 좋은 곳이 많았어요. 여행의 갈증을 도서관을 통해 해결하게 됐습니다.”

전염병의 시대에 그는 슬럼프를 극복할 힘도 얻게 됐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 그는 50세가 됐다. 나

남들에게 이해를 받으려면 이유가 필요한데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지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이해하려면 그 이유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논리로 세계를 파악하려고 해봐도 결국 패하게 돼 있어요.



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세계적 변화와 맞물리자 그는 큰 심적 변화를 겪었다.

“이제 그 이전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세상이 안 좋아지게 되고 세상이 망할 것 같구나 싶었지요. 코로나19도 기후 위기에서 비롯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우울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사라질 존재이니까. 자연법칙으로 이렇게 마구 쓰면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든 그의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든 그 시간을 통과했다. 집을 짓기도 하고,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때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뭘 하는 사람이냐고. 뭘 해서 사람들

한테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냐고.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어요. ‘세상은 완전 망할 거고 나쁜 놈들만 가득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야, 노력하면 바꿀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야기 공급자로서 세상에 뭔가를 남긴다면 조금이나마 좋은 이야기를 공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조금이라도 좋은 이야기는 우리가 미래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구나, 나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겠구나.’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때마침 코로나19 시기에 읽게 된 책도 《신 없는 세계에서 목적 찾기》였다. 무신론자의 태도와 과학자의 태도는 닮아 있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찾지 않고 인과관계만 본다는 점에서. 이런 태도는 죽음의 시대를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누구나 죽음과 병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면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길이 정해져 있는 길이고, 사람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음을 이야기로 설득한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음을 이야기로 설득한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고통이 좀 덜해지니까요.”

우연히 결말을 만나게 된 소설

새 소설집 《이토록 평범한 미래》는 코로나19 시대가 아니었으면 쓰지 못했을 법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특히나 〈진주의 결말〉을 끝마친 사연은 독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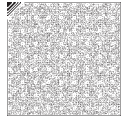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은 했는데 중간쯤 쓰다가 ‘못 쓰겠다, 펑크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감을 하지 못한 상태로 친구들과 예정된 제주도 여행을 가야 했지요. 건축가 이타미 준^{Itami Jun}의 수풍석박물관은 너무 좋았어요. 바람 박물관에 갔는데 갑자기 결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돌아와서 결말을 썼고, 쓰면서도 지금 이 캐릭터가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시다. 제가 그 캐릭터를 이해해 가는 과정 자체가 소설이었어요. 진주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죽이고 싶지만 동시에 사랑한 인물입니다. 남들에게 이해를 받으려면 이유가 필요한데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지요. ‘진짜 이해는 이유가 없는 거다.’ 진주가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설에서 진주는 작중의 소설가에게 묻는다. “노력하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었을 때 이걸 어떻게 누군가에게 이해시키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지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이해하려면 그 이유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논리로 세계를 파악하려고 해봐야 결국 패하게 돼 있어요. 삶은 나무로 만든 형편없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거지요. 전복되고 부서져도 배를 고치고 내 힘으로 바다를 헤쳐서 나가는 것. 이유 없음을 받아들이고 언제 태풍이 올지 모르니 대비하는 것이지요.”

절판을 고려했던 책의 부활

《청춘의 문장들》은 그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다. 30대부터 문학상을 휩쓸며 화려한 조명을 받았지만 전업 작가의 삶은 언제나 불안했다.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고 닥치는 대로 썼다. 그는 처음에는 이 책을 낼 생각이 없었고, 절판시킬 생각도 몇 번 했다.

“오로지 생계를 위해 돈을 벌려고 CJ 잡지에 연재했던 거예요. 책을 내고는 창피해서 인터뷰를 안 했어요. 그때 저는 글



쥘어짜도 안 나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평안에 이르렀지요.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더 많이 쓰면서도 예전에 비해 훨씬 고통이 없는 상태지요. 정신적 고통이 줄어드니

오히려 쓰고 싶은 게 생겨났어요.

은 작가가 창작해서 다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책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제발 청춘의 문장들 안 좋다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라는 핀잔도 많이 들었어요. 글에는 시효가 있어요. 시간을 이기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남은 책은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100년을 살아남으면 고전이 돼서 책장에 꽂히는 거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이걸 제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책 자체가 힘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살아남은 책에 작가가 잘 썼다 못 썼다 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17년 전 쓴 글을 그는 다시 읽고 고쳐 썼다. 어떤 글은 버리기도 하고 새로 쓴 글을 더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주로 아침에 작업을 한다. 평균 3시간 정도. 책상 앞에 앉으면 전날 하던 작업을 그대로 다시 한다. 악보를 펴놓고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처럼. 하루 동안 생각이 달라져 고쳐 쓰기도 하고, 살을 붙이거나 아예 지워버리기도 한다. 번주를 통해 매일 10매 정도 늘어나면 만족한다. 원고는 쓰는 동안 계속 문을 열어둔다. 바람 박물관에서 경험했듯이 글은 바람처럼 자신의 몸으로 불어오고, 나간다. 며칠에 걸쳐 몸을 통과한 글만 살아남는다.

“늘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썼어요. 목차를 뽑고 《청춘의 문장들》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데 끝까지 다 써지는 글이 있고, 안 써지는 글이 있었어요. 기준이 뭐냐고 하면, 저도 모르

겠어요. 지금의 몸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빼버리는 거지요. 단지 제 몸에 안 맞았어요.”

글쓰기라는 일의 기쁨과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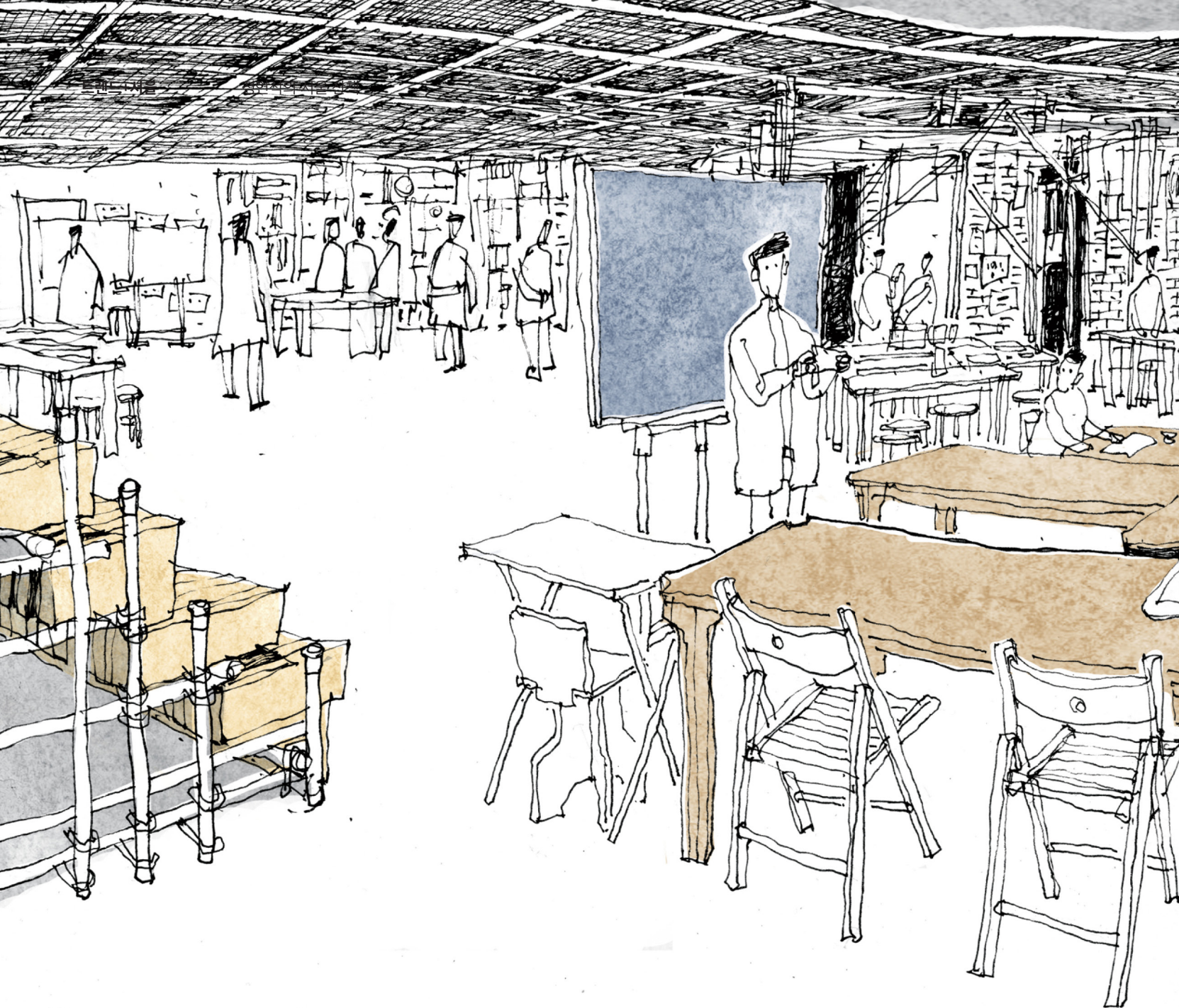
“청춘은 들고양이처럼 재빨리 지나가고 그 그림자는 오래도록 영혼에 그늘을 드리운다.” 작가가 젊은 날 써 내려간 이런 문장들을 보며 오늘의 청춘들도 밑줄을 긋는다. 50대가 된 작가는 청춘의 자신이 쓴 문장을 다시 읽고 써 내려가며 과거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 넣었다.

“젊은 날의 저에게 ‘앞으로 일을 엄청 열심히 할 테지만 그렇게 생계나 일을 걱정하지는 말라고,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든 뒤에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에도 기쁨과 슬픔이 있다. 작가의 삶에도 시련은 많다. 창작력의 고갈에 부딪히고 타인의 성취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해 책을 오랜 시간 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는 50대가 돼서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털어놨다.

“지나고 보니까 한창 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30대와 40대 초반까지 정신없이 막 울면서 일했지요. 저는 그게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나중에 가면 일을 덜 하게 되거든요. 일의 총량 법칙이 아니고,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법칙이에요. 물론 그간의 과정에 성과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 저를 몰아붙여서 써야겠다는 생각은 덜하게 됐어요. 쥘어짜도 안 나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평안에 이르렀지요.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인생은 완전히 패러독스 Paradox예요. 지금은 더 많이 쓰면서도 예전에 비해 훨씬 고통이 없는 상태지요. 정신적 고통이 줄어드니 오히려 쓰고 싶은 게 생겨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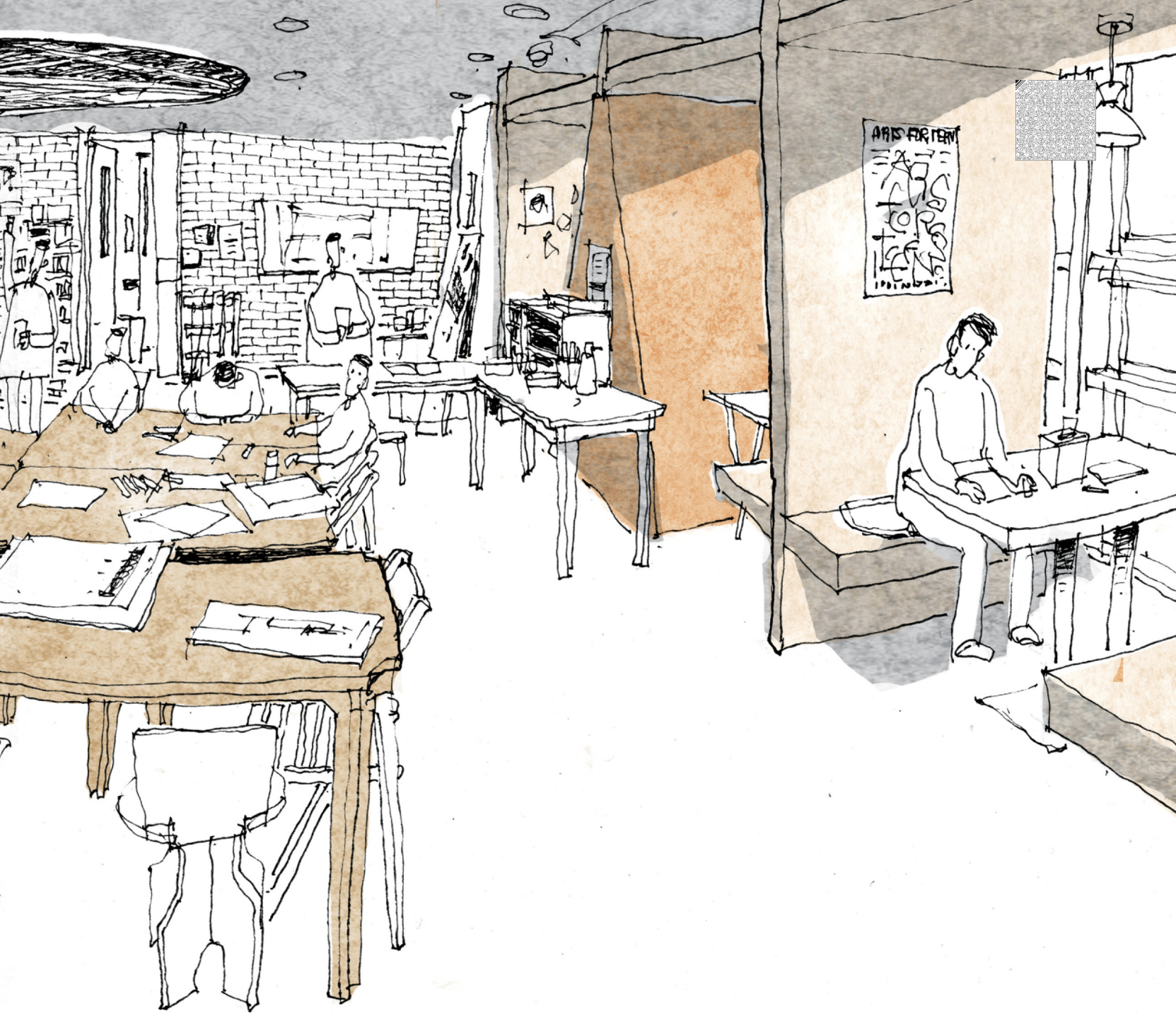
글 김슬기, 《매일경제》 기자 | 사진 백종현



철도병원에서 용산의 역사를 보다

용산

— 토요일 오전의 용산역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저마다 다른 목적의 여행자가 적당히 뒤섞인 용산역은 한가함과 번잡함 사이 어딘가에서 적당한 밀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용산역을 중심으로 용산전자상가와 신용산역 주변의 빌딩 숲은 전혀 다른 시간의 질감으로 존재한다. 오늘은 용산역 인근에 있는 서울예술교육센터를 방문하기로 하고 용산역 1번 출구로 나왔다.



서울예술교육센터, 자신의 존재를 탐색할 수 있는 곳

서울예술교육센터에는 10대 청소년의 예술교육을 위한 '아르포틴즈'와 서울 시민의 감정을 수집하는 특별한 서가인 '감정서가'가 있다. 청소년을 위한 '쓸모 있는 경험'을 모색하는 예술 교육 공간인 '아르포틴즈'는 공공시설동 5층과 6층에 위치한다. 5층에는 오픈스페이스·VR룸·녹음실·영상편집실 등이 있

고, 6층에는 다목적홀과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VR 체험이나 목공, 그림과 출판을 결합한 책자 제작 등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삶의 감각을 깨우고 생각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청소년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관찰하고

경험하며 다양한 가치를 그려나가는 공간이다. 감정서가는 용산역과 신용산역 주변에 새롭게 들어선 고층 빌딩의 1층에 있어 바깥에서 보기에는 얼핏 모던한 분위기의 카페 같았다. 실제로 지나가다 카페인지 알고 들어오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한다. 감정서가는 일상에서 무심코 흘러보내던 감정에 관해 사유하고 탐색하는 공간이다. 매일의 감정을 표현하고 기록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를 타인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간다.

서울예술교육센터를 나와 최근 새롭게 개관한 용산역사박물관으로 향한다. 박물관은 서울예술교육센터 남쪽 서빙고로 건너편에 있다. 용산역사박물관은 1928년에 건립된 용산철도병원을 새롭게 꾸며 2022년 3월 23일 개관했다. 지상 2층, 연면적 227㎡ 규모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근대건축물인 용산철도병원은 2008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2011년까지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으로 사용했다.

오늘의 산책 코스는 용산역사박물관이다. 용산역사박물관은 붉은색 벽돌로 마감된 고풍스러운 외관과 창호 등을 최대한 복원하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했다. 일제강점기 병원 건축으로서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니 스테인드글라스로 꾸며진 아치형 출입문이 시선을 끈다. 과거 철도병원 출입구에 있던 스테인드글라스를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의 삶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

용산역사박물관에서는 용산의 역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자료가 많이 전시돼 있어 넓지 않은 공간임에도 1, 2층을 꼼꼼히 다 돌아보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천의 얼굴, 용산'이라는 제목의 프롤로그로 시작되는 상설 전시는 한양의 길목이었던 용산에서 시작해 군사기지로의 변화, 철도교통의 중심지였던 용산과 철도병원 이야기, 다양성과 공존의 현대 도시 용산의 모습을 차례대로 보여준다. 2층의 기획전시실에서는 <용산, 도시를 살

리다-철도 그리고 철도병원 이야기>라는 제목의 개관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는 출입문을 지나면 용산철도병원이 용산역사박물관으로 변신하는 리모델링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옆 출입구로 들어가면 용산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 및 영상 자료를 모아놓은 아카이브 미디어실을 만나게 된다. 지금은 먼 과거가 된 흑백사진 속 용산의 모습과 컬러사진으로 보여주는 최근의 모습까지 용산에 관한 흥미로운 사진과 영상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용산은 과거 조선 시대 세곡선이 드나들던 중요한 포구가 있던 곳이다. 각 지역의 세곡이 용산에서 모여 도성 안으로 운반됐다. 자연스럽게 용산은 한양의 길목으로 교통과 물류의 거점이었다. 그런 용산이 일제의 병참기지가 되고 광복 이후 미군의 오랜 주둔지가 됐던 역사도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조선 시대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용산이 근대 시기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도 흥미롭다. 1900년 한강철교가 준공되고, 용산역을 중심으로 철도국·철도공장·철도관사·철도병원·철도종사원양성소 등 각종 철도시설이 세워진다.

철도 의료의 본거지로서 용산철도병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것도 흥미로웠다. 철도병원은 철도 종사원과 그 가족, 여객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당시의 외과 처치실을 복원 보존한 전시장에서 1928년에 건립된 철도병원의 본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역할, 그리고 지금의 역사박물관으로 바뀌기까지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다. 박물관에서는 과거 병원 시설일 때의 아치형 기둥을 그대로 살린 복도와 당시의 기둥을 볼 수 있다. 당시 사용된 환풍기, 약국 창구, 출입문 등도 보존돼 있으며 난방을 하던 라디에이터도 오랜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채 전시돼 있다.

1950~1960년대 미8군에서 활동하던 가수들의 이야기와 광복 후 물려든 실향민들로 형성된 해방촌과 관련된 전시도 흥미로웠다. <오발탄>이나 <박 서방>과 같은 오래된 흑백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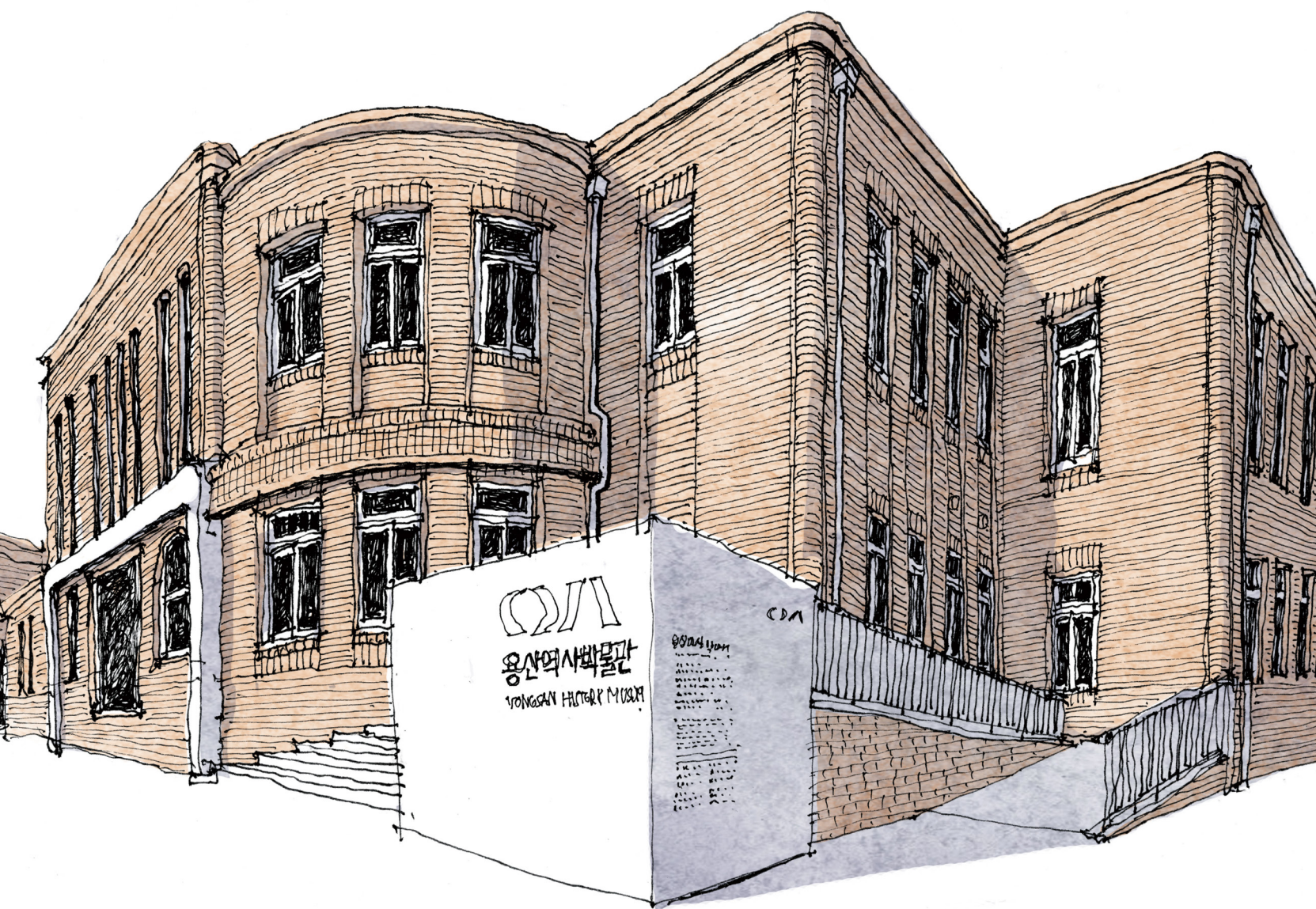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공간적 배경이 됐던 해방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용산역사박물관의 1층부터 2층까지 용산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시간 여행의 마지막 산책 코스는 현재 용산의 변화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옥상

정원이다. 최근 신용산역 주변의 고층 빌딩과 용산역, 그리고 과거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쌓여 있는 용산의 크고 작은 건물들을 보면서 용산 역사 산책을 마무리했다.

글 그림 정연석 《서울을 걷다》 저자





시민에게 열린 예술가의 공간, 어서 오세요!



신당창작아케이드 오픈프로그램·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전업 작가의 작업실. 으레 신비롭고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작업실의 문이 모두에게 활짝 열리는 시기가 있다. 흔히 '오픈스튜디오'로 불리는 작업실 개방 행사는 일반 시민이 예술가의 일상과 작품의 배경을 알아가기 좋은 기회다. 동시에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영감과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10월에는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창작공간 두 곳의 입주 작가 작업실을 공개한다.

공예로 신당, 공예를 산당!

2022 신당창작아케이드 오픈프로그램 | 10.6~10.8 |

신당창작아케이드 커뮤니티룸, 아트마켓, 갤러리 등



도심 속 예술 창작의 산실인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와 아트마켓이 열린다.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이다. 많은 것이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뤄지는 세상에서 신체의 감각을 사용해서 물건을 느끼게 창조할 때 오는 특별한 휴식감을 시민에게 선사하고 그 창조를 직업으로 삼은 누군가의 손길이 담긴 공예품을 곁에 두는 기쁨을 환기해 보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된다. 먼저 공예 창작 클래스 <공예로 신당>에서는 백시내 작가의 '칠보 플레이트 만들기', 구자문 작가의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를 비롯한 도자, 목공, 페이퍼아트, 레진아트 등 11개의 클래스를 연다.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의 작업 분야를 활용해 공예를 처음 접하는 시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예 아트마켓 <공예를 산당>에서는 입주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판매한다. 찻잔, 화병, 조명 등 일상 소품 위주로 라인업을 구성해 구매 진입장벽을 낮췄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구매 가능하며 작가에게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통 마진을 제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위스키 브랜드 메이커스마크가 협업해 프로그램 참여 시민과 입주 작가를 위한 프라이빗 바를 운영한다. 아트마켓 구매 인증샷을 남기면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와 프로젝트 전시 <익숙한 환상>도 동시에 진행한다.

느슨한 포옹

2022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 10.7~10.9 |

금천예술공장 내 작업실, PS333 등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예술적 실험과 창작의 공간, 금천예술공장이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오픈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정기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주

작가 16인의 작업실 개방과 함께 퍼포먼스·토크·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시각예술계 관계자와 일상 속 시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는 입주 작가 개개인 이 가지고 있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난 예술적 실험을 독려하는 <실험 프



로젝트> 전시를 금천예술공장 전역에서 진행한다. 참여 작가 5팀(총 11명)은 예술의 기술적·주제적 실험을 지속하며 스스로 마주한 한계와 어려움을 동료 작가와 나눴고, 공통의 지점을 찾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입주 작가 16인의 작업실을 개방하는 <예술가의 방>과 4명의 모더레이터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서도 동시대 예술과 환경, 사회를 조망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퍼포먼스>도 올해는 총 2회 편성해 오프닝(10월 7일)과 클로징(10월 9일)에 각각 만나볼 수 있다.

2022년 금천예술공장에는 16명의 시각 분야 예술가(김다움·김도영·김시원·김지영·류성실·서성협·안광휘·양승원·양지원·오민수·유신애·이희준·전혜림·정지현·차지량·현정윤)가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작가들에게 꿈의 공간이라 불리는 금천예술공장. 2022년의 작가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글 이고은,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임승언,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정리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사진 서울문화재단

※사전 예약, 시간표 등 각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sfac.or.kr과 본문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적 온고지신

〈죽심가〉와

〈스위스 취리히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1 〈2022 홍석영 대금콘서트 죽심가〉 포스터

2 대금 연주 모습

3 스위스 취리히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온고지신溫故知新, 《논어論語》에 나오는 말로,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자는 뜻의 사자성어다. 예술의 여러 장르에서는 흔히 옛것을 우리나라 전통예술로, 새것을 서양의 문화예술로 치환하고는 했다. 공자가 온고지신을 썼을 때는 타인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설파하고자 했다. 그의 말마따나 모두가 남의 스승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온고지신의 태도를 지녀서 나쁠 리 없다. 하늘이 높은 이 계절, 전통음악을 익혀보고 서양음악을 알아가며 우리의 마음도 살찌워 보자.

대나무 사이로 흐르는 숨결이 노래가 되어

〈2022 홍석영 대금콘서트 죽심가〉 | 10.9 | 구름아래소극장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인 홍석영이 단독 대금 콘서트를 선보인다. '대금에 온 마음을 담아 부르는 노래'라는 뜻의 공연 제목 '죽심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금에 대한 홍석영 연주자의 열정과 사랑을 오롯이 담은 공연이다.

대금은 신라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관악기다. 나라에 근심이 생길 때 불면 태평해진다는 '만파식적萬波息笛'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애절하면서도 맑은 소리를 내는 대금은 거의 모든 전통음악 합주곡에 편성되며 퓨전음악과 가요에도 종종 쓰일 정도로 대중적 매력을 갖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합주 악기가 아닌 메인 보컬로서의 대금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셋리스트Setlist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금이 중심이 되는 곡들로 구성했다. 대표적으로 홍석영 대금연주자가 작곡에 직접 참여해 지난 8월 앨범으로 발매한 '일출여지곡'과 '산조 가락에 의한 환상곡: 죽풍산조' 등이 이번 공연에서 처음 라이브로 연주된다. 밀양아리랑·정선아리랑·해주아리랑 등을 엮어 편곡한 '아리랑 연곡', 밴드 연주와 함께 즐기는 안예은의 '상사화',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 등 익숙한 가요도 포함돼 대금에 친숙하지 않은 관객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온고溫故'하기 좋은 기회다.



90인의 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압도적 연주

〈스위스 취리히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 10.19 |

롯데콘서트홀

90여 명의 젊은 연주자가 스위스의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다. 취리히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7년 만에 내한해 안동-안성-대구-홍천을 거쳐 서울에서 공연을 올린다. 취리히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에서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특히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체코 필하모닉 스튜던트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인 문보하가 협연한다. 교향시 '핀란드야'로 유명한 시벨리우스가 유일하게 남긴 협주곡으로, 초반부 바이올린의 기교와 후반부 관현악과의 유려하고도 웅장한 조화가 돋보이는 곡이다. 약 50분에 이르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은 '운명'을 주제로 한다. 3악장에 미뉴에트나 스케르초를 구성하는 보편적 교향곡

과 달리 '북방의 왈츠 왕'이라는 차이콥스키의 별명답게 왈츠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취리히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987년에 창단됐다. 스위스의 유서 깊은 음악학교 '취리히 콘서바토리(음악원)'의 대표 오케스트라로, 오디션을 통과한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수준 높은 연주자들로 구성됐다. 현재는 스위스 출신의 지휘자 데이비드 브뤼세-랄리가 이끌고 있으며 톤 할레 오케스트라의 주니어 파트너로 선정돼 음악적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취리히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매년 해외 투어를 진행한다. 한국은 2006년과 2015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방문이다. 이번 가을, 유럽 본토에서 온 젊은 아티스트들이 들려주는 생동감 넘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서울에서 만나보자.

글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사진 제공 (사)한국국악협회 중랑구지부, 스테이지원

서해로
지난여름
영병으로
팔 흔들
모든 못
생명에게
파사롭게

등을 다독이는
한여니의
강건한 손
이제,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
잠깐 눈을
감은 것





세빛섬: 2006년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만든 한강 인공섬이다. 한강에서 색다른 수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정착되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10월 3일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질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쇼케이스 공연.

글 김영호_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장 | 사진 서울문화재단(강민정)

※ 서울 참나의 본문 서체는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필체를 본떠 만든 '박상원체'를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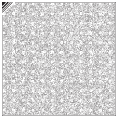
서울 지하철과 다이너믹 코리아

서울을 표현하는 디자인의 세계

너무 익숙해 쉽게 눈길을 주지 못했던 서울시민의 '매일의 공간' 지하철. 하지만 그곳에 서울을 표현하는 다양한 디자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 지하철이 개통될 때 정성스럽게 붙여져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지하철 타일 벽화로 새겨진 20세기 서울의 이미지를 탐험해 보자.

국립현충원

동작역의 디자인 주제는 '국립현충원'이다. 동작역은 국립묘지에 인접한 역으로서, 신성하고 순결한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 고유의 건축미를 살려 지붕을 기와 모양으로 설계했다고 전해진다. 동작동은 조선왕조 때 서울과 수원 이남 지방을 잇던 동재기 나루, 즉 동작진에서 유래한다. 동작동에는 호국 영령들이 잠든 국립서울현충원이 자리 잡고 있다.



꽃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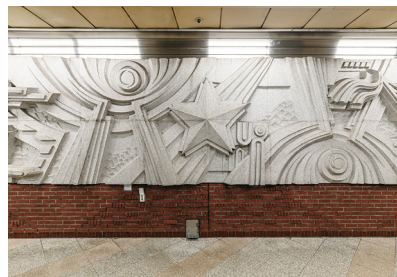
고속터미널역의 디자인 주제는 ‘꽃길’이다.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드는 고속도로 이미지와 함께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풍요로운 모습을 ‘꽃길’ 벽화로 표현했다. 반포동에 고속버스터미널이 들어선 것은 1976년 9월 1일, 이후 서울역과 함께 서울의 관문이 됐다. 이 지역은 개울이 서리서리 흐르기 때문에 ‘서릿개’(현재의 서래마을) 또는 ‘반포 盤浦’(현재의 반포동)가 됐다는 설이 있다.



달리는 전동차

노원역의 디자인 주제는 ‘달리는 전동차’다. 당시의 노원 지역은 개발되지 않아 노원역이

우뚝 위치한 형상이 마치 넓은 들판 위를 달리는 전동차를 연상시켰지만 현재의 노원은 밀도 있게 개발돼 전체 건축물의 형태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노원’이라는 지명은 조선 시대 국립 여관인 ‘원院’이 있던 곳이라서 붙었다고 하며, 서울의 ‘이태원’ ‘홍제원’과 같이 국립 여관의 역할을 담당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국군의 이미지

삼각지역의 디자인 주제는 ‘국군의 이미지’다. 붉은 벽돌에서 굳센 느낌이 전해진다. 승강장 화강석에는 ‘오늘의 국군’ ‘내일의 국군’이라는 부조 작품이 새겨져 있다. ‘삼각지’라는 지명은 한강, 서울역, 이태원 방향으로만 도로가 나 있어 땅이 ‘세모 모양’인 데서 유래한 것이다. 과거 이곳에는 삼각지 로터리라는 거대한 입체 교차로가 건설돼 있다가 1994년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건설 문제로 철거됐다. 대합실로 내려가는 벽면에 삼각지 로터리로 보이는 패턴이 새겨져 있다.



한국의 이미지

미아역의 디자인 주제는 ‘한국의 이미지’다. 한국 민족의 얼을 표현하고자 대합실에 ‘민속놀이’, 승강장에 국보급 문화재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남대문’ ‘첨성대’ ‘거북산’ ‘농악’ ‘강수월래’ ‘탈춤’ 등이 귀여운 패턴으로 새겨져 있다. ‘미아’라는 지명은 고려 시대 말기부터 부근 야산과 언덕에 마을이 있어 넓은 ‘미’와 언덕 ‘아’를 합해 부르던 것이라고 한다.

글 이소영_인스타그램 @metroofseoul 운영자: 20세기 서울의 지하 공간과 이미지를 탐색한다. | 사진 석준기
※ 격월로 연재되는 지하 미감 어드벤처는 <동물들> <서울의 옛 풍경> <다이너믹 코리아> <무늬> <사라진 벽화들> 순서로 서울 지하철 벽에 새겨진 모양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낳으시고, 낳으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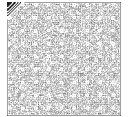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멘MEN>

※영화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멘>(2022)

감독 알렉스 가랜드
출연 제시 버클리(하퍼),
로리 키니어(남자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이라는 문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남자들이 남자를 낳고, 또 낳고, 또 낳았다는 기록이다. 역사의 기록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생명 탄생의 핵심인 여성을 지우고 아버지와 아들로만 이어지는 남자들의 연대기만 기록하더니, 우리 그래도 괜찮은 걸까?

어떤 남자들

하퍼(제시 버클리)는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분명하지 않은 남편의 죽음을 목격한다. 마주친 남편의 눈빛, 훼손된 남편 시신이 남긴 잔상은 계속 그녀를 괴롭힌다. 그녀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여유롭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난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묘하게 습하고 음침하다. 그녀는 누군가 계속 지켜보는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낀다.

2022년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막작으로 한국 관객과 만난 <멘MEN>은 남성과 여성 사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공포의 근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남자들’이라는 제목과 달리 영화는, 남자들은 주변부에 있고 하퍼라는 여성 주인공이 이끌어 간다. 알렉스 가랜드 감독은 데뷔작 <엑스 마키나Ex Machina>로 시작해 <서던 리치: 소멸의

땅>, 개봉을 앞둔 또 다른 작품 <시빌 워Civil War>까지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었으며 이 작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영화 속 남자들은 나이, 인종, 외모와 관계없이 모두 폭력적이다. 하퍼는 오롯이 자신으로 살겠다며 남편을 자신의 인생에서 밀어내려 하지만 남편의 집착은 결국 폭력으로 돌아온다. 낯선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휴식을 위해 찾아온 시골 마을의 남자들은 민들레 꽃씨처럼 하퍼의 공간으로 불쑥 날아 들어와 제멋대로 그녀의 공간과 시간을 침범한다.

그리고 한 여자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지만 영화의 정서가 깔고 있는 것은 오늘날 여성들이 살면서 남성이라는 존재로부터 느끼는 막연하고 일상적인 공포다. <멘>에는 다양한 나이대의 남성이 등장하지만 알렉스 가랜드 감독은 그 모든 남자를 한 사람이 연기하게 한다. 그래서 남성성의 스펙트럼 안에서 알게 모르게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혐오가 더 구체적이고 단일한 속성으로 드러난다.

<멘>은 드러내놓고 남성을 일반화한다. 그래서 남성의 유형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가하는 폭력의 유형도 전형적이다. 남성들은 자신의 나체를 아무렇지 않게 전시하며 동의받지 않은 스킨십을 하거나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폭력으로 힘을 과시한다. 그리고 여성을

정의하고 탓한다.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신체 변형 시퀀스에서 결국 남자들이 남자를 낳고, 또 낳고, 낳아대를 이어온 젠더 집합체임을 강조한다. 시간을 거슬러도 파괴되고 소멸되고, 다시 태어나도 처음 모습 그대로인 아담의 모습이다. 가부장적 남성성이라는 그 변함없고 지독한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과를 먹은 탓인지 하퍼는 선악과를 따 먹은 이브 취급을 당한다. 하지만 일반적 공포 서사와 달리 하퍼라는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거나 주저앉지 않는다. 남성이라는 침입자에 맞서기로 작정한 하퍼는 폭력으로는 결단코 자신의 몸이건 마음이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듯 단단히 두 발로 버틴다.

마지막 장면. 영상으로 소통하던 친구가 하퍼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소동이 끝난 저택에 도착하는데 그녀는 임신을 하고 있다. 맞다. 모든 출산은 여성이 주체다. 이 당연한 전제조건을 바로잡으려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소환해서 고쳐야 한다. 오래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 박도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나는 아팠고, 어른들은 나뻐다> 등이 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백년의 서사>에서 우도 콜렉티브의 공연 장면

2022년 가을로 소환한 판소리 5명창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 공연 <백년의 서사>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서울의 배우는 크게 구파와 신파로 갈렸다. 조선의 전통 공연을 하는 구파 배우는 주로 광무대와 단성사에서 공연했다. 신파 또는 신파극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했다. 일제강점기의 신파극은 일본풍 연극이 조선풍으로 토착화하는 과정이다. 이수일과 심순애가 등장하는 <장한몽>은 전형적 신파극이다. 신파극의 특징은 과장된 연기다.

젊은 아티스트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구파 배우 5명창
조선의 구파극 중 가장 인기를 끌면서 성장한 것은 판소리에서 출발한 창극이다. 김창환金昌煥, 1854~1927, 송만갑宋萬甲, 1865~1939, 이동

백李東伯, 1867~1950, 김창룡金昌龍, 1872~1935, 정정렬丁貞烈, 1876~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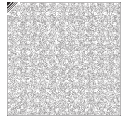
이렇게 판소리 5명창에 의해 구파극(창극)은 발전하게 된다.

9월 1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2022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개막 공연은 <백년의 서사>였다. 100년 전, 이 땅에서 유명했던 구파 배우 5명창을 지금 이곳으로 소환했다. 아날로그 시대의 5명창이지만 디지털영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그들이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아티스트와 공존하는 듯했다.

판소리 5명창은 유성기 음반을 남겼다. 그동안 5명창의 디지털 음반화 작업도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복원 연주도 있었다. 5명창에 대한 애착이 느껴졌지만 고제高制 판소리의 복원 연주는 한계가 있었다.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어찌 비슷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번 개막 공연 <백년의 서사>는 달랐다. 5명창의 소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두 5명창의 음색으로 살려냈다. 여기에 젊은 아티스트인 소리극단 도채비가 콜래버하는 방식이었다. 도채비의 젊은 소리꾼 5인이 각각 5명창이 됐다.

하지만 판소리 명창은 '구파 배우'인데 도채비의 대사와 움직임은 너



무도 '신파조'였다. 그들은 마치 신파 배우처럼 구파 배우 5명창을 소개했다. 도채비의 대사와 움직임은 '판소리의 아니리'보다는 '신파극의 변사'에 가까웠다. 연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서는 안타까웠다.

정정렬 명창과 우도 콜렉티브의 만남은 재미있었다. 정정렬 소리에 브리지(bridge)처럼 설장구¹가 들어갔다. 정정렬 명창과 설장구도 모두 '복잡한 가락'에 의미를 뒀는데 둘 사이의 예술적 공약수는 '호흡'이다. 이것은 악보를 매개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하다.

김창환 명창과 만난 이아람(대금), 황민왕(퍼커션), 오정수(기타)의 연주는 꽤 세련됐다. 판소리 음원을 토대로 재즈풍의 월드뮤직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성시영(피리, 태평소)이 더해지자 음악적 에너지는 활화산처럼 솟아올랐다. '더늠'²이 고도의 수련 과정을 통해 자기화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들이 그러한 존재라 할 수 있었다.

소수의 마니아에게 깊게 파고드는 축제로 거듭나길

가장 흥미로웠던 연주는 김창룡 명창과 만난 디지털 시나위였다. 이것이야말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이상적 결합 형태인 '디지털로그'라고 하겠다. 새로움과 익숙함의 적정선이 살아 있었다. 마치 할아버지의 비밀을 밝혀낸 손녀와 손자라고나 할까? 예술적 과장과 놀이적 흥미를 지향하고 있었다.

송만갑 명창과 만난 천하제일탈공작소의 공연도 좋았다. 1938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열흘간 서울의 한복판에서 향토연예대회가 열렸다. 부민관에서는 판소리 명창이 공연하고 인근의 가설무대에서는 탈춤과 재담이 펼쳐졌는데 마치 그 시절을 압축해 경험하는 느낌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동백 명창과 만난 두 배우(박현욱&이창현)의 연기는 어설픔게 다가왔다. 소리극단 도채비와 같은 과정에서 거부감이 느껴졌다. 또한 객석에 관객처럼 앉아 있다가 불쑥 등장해 갑작스럽게

소리를 하는 '페스티벌 소리 합창단'과 '소리천사'의 연출은 분명 호불호가 갈릴 만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개막 공연 <백년의 서사>는 개인적 취향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성기 음반 속 대표 구파 배우 5명창을 새롭게 다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 중 가장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성장해 왔다. 20년을 지난 지금, '믿고 보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舊態)가 남아 있다. 그것은 또 다른 '신파적 과장'이다.

소리축제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인해전술(人海戰術)'이 있다. 음악적, 축제적 의미에서라기보다 '기네스 기록적 발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보여 안타깝다. 또한 개막 공연이나 폐막 공연에서는 동어반복이 많다. 이번 개막 공연 마지막 노래에서 '광대'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가! 그것은 단어(개념)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표현(방식)의 한계이기도 하다.

꽃을 꽃이라고 불렀을 때 꽃이라는 대상에 더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꽃이라는 존재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꽃이라는 이름을 결코 마구 반복할 수 없다. 반복적 과장은 현대의 전통예술 축제가 결별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전주세계소리축제 역시 멀티플렉스처럼 흥미를 주로 추구하는 복합상영관이 아니기를 바란다. 소수의 마니아에게 깊게 파고드는 시네마테크와 같은 진중함이 더욱더 보강되길 바란다.

글 윤종강 국악 평론가 | 사진 제공 윤종강

※해당 기사는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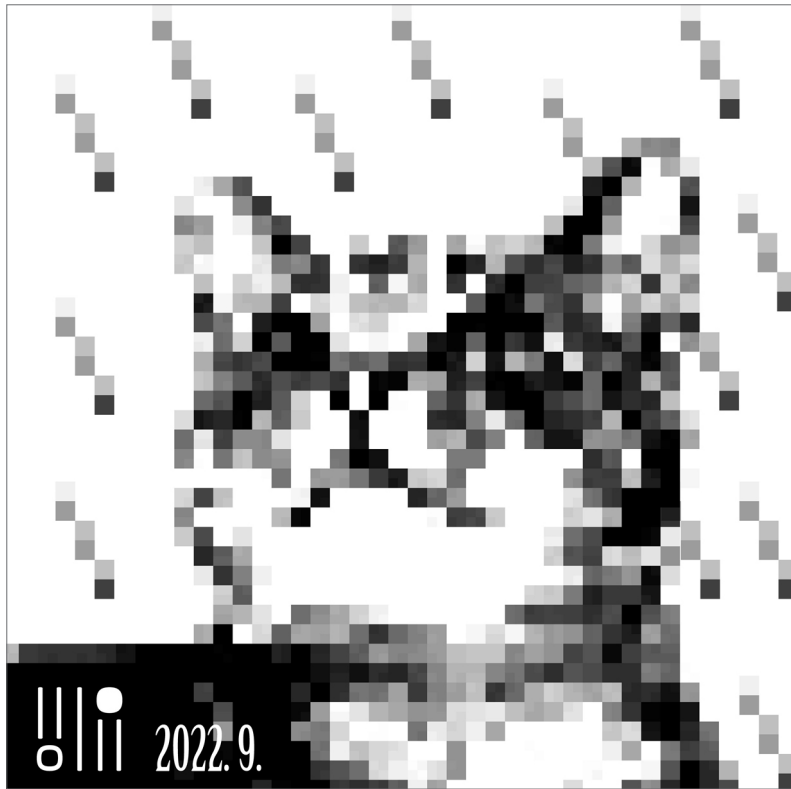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백년의 서사>에서 천하제일탈공작소의 공연 장면

¹ 일어서서 어깨에 걸쳐 메고 치는 장구를 말한다.

² 판소리 명창이 독창적으로 소리와 사설 및 발림을 짜 연행한 판소리의 한 대목으로 그 명창의 장기로 인정되고 또 다른 창자에 의해 널리 연행돼 후대에 전승되는 것을 말한다. '더 낯다'에서 왔다는 견해가 있다.

!!!

슬픔이나 냉소보다 중요한 것



〈쓰다〉 57호 포스터

매년 9월부터 해를 마감하기까지 장르별 특집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57호는 '비인간'을 주제로 시 특집을 꾸렸습니다. 인간성의 상실을 상상할 수도, 인간 아닌 존재에 이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인의 상상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까지 가닿습니다. 기획의 말을 통해 하재연 편집위원은 "인간의 살이를 위해 소거되거나 폐기되는 비인간 존재의 꿈을 그려내는 것이 시의 언어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은 인간이 존재하는 지구상에 인간의 시선이 닿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폐허이거나 천국일 것입니다.

이원 시인의 두 편의 시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혀 소개합니다. 시인은 인간이 사라진 지구를 상상할 때, 혹은 풀이나 고양이 나 새와 같은 비인간 존재의 위치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이 세계가 얼마나 낯설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저로서는 실로 상상해 본 적 없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려보기 어려웠을 세상을 시의 언어를 통해 엿보았습니다.



사람 없는 여기 풀 흔들리는 소리 가득 차오르는 여기 말라가는 심장 모양 돌들 많다 비대해진 바위 많다 거짓말 같지만 고양이는 모두 노란색이다 여기 고양이는 모두 오로라라고 부르던 사람들 없다 뭉텅뭉텅 구덩이 많다 빈 항아리 많다 여기 새들은 같은 말을 한다 새들이 떼어내는 발들 항아리 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이원, <희귀한 지구 방정식> 중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호의 책임도 잊고 어느 날 인간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는 너무나 많은 우연과 그 우연이 빚어낸 인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생태계를 자기 안에 품게 되었습니다. 태양계 다른 행성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지구라는 적당한 환경을 누리는 인간의 삶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운이 좋은 것이죠. 인간이라는 복잡한 생명체는 지구에서 일어난 엄청난 확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연에 우연이 겹쳐 발생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인간의 삶'이라는 사건이 모종의 이유로 문득 지워진다면? 이때 이원 시인의 상상력은, 인간이 존재하는 편이 낫다 혹은 인간 같은 건 사라지는 편이 좋겠다 같은 이분법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사건이 삭제된 지구가 품게 될 무성해지는 풀, 한가한 빛, 아무렇게나 놓인 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가 슬프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역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없는 풍경 곳곳에는 슬픔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 시를 읽는 우리가 인간이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뭉텅뭉텅 구덩이'와 '빈 항아리'에서 인간의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비로소 작은 수업이 시작된 듯하다.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크기가 줄어들면 훨씬 보기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쪽. 비로소 작은 예감이 커진 듯하다. 빛은 식물들이 새들이 잊지 않고 꼭꼭 물고 오는 쪽지라고 믿는 편. 빛의 시작이나 빛의 끝을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빛은 여기를 통과하는 인간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 편. (중략) 가까스로 매달린 손도끼 그림자처럼 비로소 작은 수업이 시작된 듯해. 쪽지를 해석할 수 없었지만 의도를 가늠할 수 없었지만 인간은 팔 다리 몸통 머리 이렇게 분류할 때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편.

이원, <생물권> 중

두 번째 시에서 인간은 다시 지구라는 공간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위의 시가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 역시 우리가 익히 아는 지배하는 인류, 세상 곳곳에 넘쳐나는 인류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그러니까 환경과 주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인류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식물이나 새가 '빛이라는 쪽지'를 물고 오는 풍경을 바라보거나, 그러한 사소하고 무해한 존재의 시선에 아무렇지 않게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앞선 시는 인간이 사라진 풍경이라서 어쩐지 슬프습니다. 다음 시는 인간을 비인간처럼 그려서 조금 냉소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원 시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냉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새삼 느낀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인간을 지구의 주인으로 여기는 일에 너무나도 거리낌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시인이 우리에게 권하는 읽기 또한 그러한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슬픔과 냉소를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말 것, 그러한 슬픔과 냉소가 발생하는 까닭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인간'이기 때문은 아닌지 고민해 볼 것.

글 김잔디 [비유] 편집자 | 사진 웹진 [비유]

연극人n

()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대체로 커튼콜은 괄호를 닫는 일이다. 무대의 시간은 대체로 그렇게 커튼콜로 닫힌다.

극장의 시간

한 번쯤은 공연의 커튼콜만 모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커튼콜에 선 배우의 표정을 살피는 일에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 역할에서 비로소 벗어난 배우가 관객의 반응을 살피며 오늘을 곱씹고 객석 어딘가 앉았을 지인을 찾기도 한다. 때때로 기쁨, 환희, 혹은 어떤 보람, 고마움, 더러는 아쉬움 같은 것이 커튼콜의 표정 가운데 어려 있다. 많은 표정이 커튼콜에 들어 있다. 연출한 공연의 커튼콜이라면 ‘오늘 공연도 무사히 끝났구나’ 하는 안도와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곤 했고, 때로 이런저런 마음이 뒤섞인 일종의 멜랑콜리한 기분을 맛보기도 했다. ‘긴장이 풀리면서 허전함 같은 것일까?’ 생각해 본 일이 있다. 어쨌든 나 역시 공연의 끝을 그렇게 커튼콜로 맞이하곤 했다.

어느새 연출만 하던 시간보다 극장장 노릇을 함께 한 시간이 더 길어졌다. 무대보다 극장에 머물기 시작했다. 대체로는 관객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사이. 이를테면 ‘극장의 시간’이다. 극장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적잖은 시간을 보냈고, 재작년 어느 날부터는 극장 계단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¹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힌다. 무엇이 시작되고, 무엇이 끝을 맞이하는가. 주차장에서라면 가끔 1층까지 들려오는 박수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계단의 등이 내려오는 관객에 의해 층층이 점멸할 때에야 ‘끝’임을 알 수 있었다. 주차장에서, 그사이의 시간은 자주 텅 비어 있었다. 그에 비해 계단참에서 보내는 시간은 조금 다르다. 계단참에서는 공연을 듣는다! 가만히 들으며 장면을 지나 보내고 나면 이윽고 들려오는 박수 소리. 계단참에서 보내는 시간은 공연의 시작과 끝에 가깝고 또 가득 차 있는 셈이다. 다시 문을 열고 계단의 불을 켜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올라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대 위 커튼콜의 장면은 이미 지나고 난 뒤다.

무대의 시간

공연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가. 한 회 한 회의 커튼콜을 지나 마지막 회의 커튼콜. 연출만 하던 시간 동안 쉽게 단정했던 시작과 끝, 어쩌면 커튼콜이 야기한 착각은 아니었을까. 하긴 일상의 시간에는 이렇게 잦은 커튼콜이 없다. 다시 어떤 시간을 생각한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사이 단어나 문장을 넣어두고 때로 그것을 기억이라 불렀다. 괄호 안에 제멋대로 구겨 넣은 단어를 통해 그 순간을 정리하고 또 떠올렸다. 때로 그것은 공연이다. 괄호 열고, 다시 괄호 닫고. 그사이의 것은 단순한 제목 이상의 공연 자체가 되기도 한다.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기까지 그사이의 시간을 생각한다.



신촌극장에서 공연한 <그리고 흰공책 가득 그것들이 썩어지는 밤이 왔다>(2018)

그것을 '무대의 시간'이라고 불러본다. 대체로 커튼콜로 그 괄호가 닫힌다. 무대의 시간은 대체로 그렇게 닫히는 듯했다. 그러나 괄호를 닫는다고 해서 극장의 시간이나 연극의 시간이 끝나지는 않는다.

하긴 나에게 제일 궁금한 연극의 시간은 커튼콜 이후의 시간이다. 어떤 마음으로 극장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가. 또 어떤 일상을 보내다 드문드문 떠올릴까. 나에게 시간이란 어차피 그저 기분이고 기억은 미래와 같은 것이라서 무엇이 얼마나 빠르게 밖으로 새어 나가고 있을까. 무엇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를 생각하는 일은 정말이지 부질없다는 결론에 이를 따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이다. 연극의 시간은 어떻게 끝을 맞이하는가,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리고 보면 어떤 날의 커튼콜 박수는 연극의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까를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힘차거나 혹은 조용하거나. 그것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연출자인 나는 실낱같이 얇고 가벼운 무언가가 반드시 남을 것이라고 애써 믿으며 그 '끝'을 자꾸 부정해 보는 것이다.

시간이 쌓이고, 또 이어진다.

괄호 안의 것들은, 대체로 괄호 밖을 향해 있다.

1 신촌극장 초기 대표 공간은 건물 1층의 주차장 서터 안쪽이었다. 3년여 시간이 흐른 뒤부터는 옥탑의 극장 반 계단 바로 아래 계단참에서 관객을 맞이하고 있다.

글사진 제공 전진모·연출가이자 신촌극장 극장장. 2017년 6월 개관한 신촌극장은 물리적 한계와 제약이 가득한, 아주 작은 옥탑 공간이다. 다만 장르 불문의 공연예술이 함의하는 다채롭고 진취적 자기표현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매해 작가(창작자) 중심으로 꾸린 라인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춤추는 비거니즘

라시내, 유지영, 차진엽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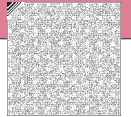
왼쪽부터 유지영, 라시내, 권태현, 차진엽

춤을 만들거나 몸을 매체로 삼는 예술가들과 함께 비거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먹는 문제에서 시작해 윤리적 고민, 삶의 태도와 작업의 형식, 그리고 욕망을 거스르지 않고 춤추며 즐기는 비거니즘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무용인들과 함께 꾸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낸다. 이 지면의 원고는 웹진 [춤in]에 실린 대담의 일부를 축약해 옮긴 것이다.

라시내 흔히들 채식은 욕망의 절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스스로 인생에 제약을 건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나는 채식을 하는 것이지 금욕을 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만약에 주체할 수 없이 뭔가가 먹고 싶다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설령 자신이 정한 어떤 선을 어기더라도 죄책감에 휩싸이기보다는 그 경험으로부터 앞으로 더 잘 실천해 나갈 힘을 얻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것이지 내가 나의 통제자가 돼서 나를 억압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건으로 사는 것의 어려운 점보다 비건으로 사는 것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더 자유롭게 됐는지.

권태현 꼭 필요한 이야기네요. 도를 닦으려고 비건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해방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거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지영 최근 들어 삶의 태도와 작업을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하루 종일 고민하는데 사실 내 작업으



권태현_춤in 편집위원, 큐레이터

글을 쓰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예술계에서 활동하지만 쉽게 예술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에 항상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예술 바깥의 것을 어떻게 예술 안쪽의 대상으로 사유할 수 있을지 탐구한다. 정치적인 것을 감각의 문제로 파악하는 관점에 무게를 두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라시내_연출가

공연을 만들고 글을 쓴다. 안무가 최기섭과 함께 프로젝트 이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인들은 바닥없는 호수에서 헤엄친다> <무용수-되기> 등을 안무·연출했다.

유지영_안무가

몸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념에 의문을 던지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현재는 비건을 실천하며 어떻게 하면 다른 종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만족(산토샤santosha)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고 노래를 듣고 춤을 춘다.

차진엽_안무가

몸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며 몸/몸짓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존재에 대한 질문과 탐구를 해 나가고 있다. 2012년에 'collective A'를 창단해 예술 장르 안의 경계 지음을 허물며 예술이 가진 입체적인 가치를 모색하고 있다. 삶과 예술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 예술적 삶을 추구한다.

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진짜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작업에 가시화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제 작업 중에서 특히 <다시 어떤 것의 몸이 되기도 한다>는 순환하는 몸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저는 지금 인간이지만 제가 결국 죽으면 땅으로 가든 불태워지든 다른 물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다른 존재와의 연결성을 작업에서도 다뤄보고 싶었어요.

권태현 비거니즘을 몸과 물질의 문제까지 확장해 접근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차진엽 저는 삶의 어떤 실천이 작업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2012년에 'collective A'를 처음 창단했을 때 시작한 작업부터 환경 전반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무대에 공연을 올리는 일이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거든요. 일회성으로 쓰이고 마구 버려지는 무대세트를 보면서 본질적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지구는 아파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단 하루 무대에서 빛나기 위해 만들어지는 이것들이 대체 뭘 위한 것일까. 물론 무대 위에 오른 사람들과 관객은 가져갈 것이 있겠지만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작업에도 포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메시지로 담기보다 그냥 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권태현 맞아요. 어떤 작업이든 정치적 문제를 명료한 메시지로 제시하면 공허한 구호만 남아버릴 수 있어요. 그것보다 정치적인 것을 작업의 기반에 두는 태도가 오히려 어떤 정치적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시내 제가 공연이라는 형식을 좋아하는 것은 남김없이 다 펼쳐져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펼쳐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일상의 시간은 자꾸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희생됩니다. 미래에 완전하게 실현될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나는 희생을 해야 하지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저는 그 시간을 펼치고 싶어요, 지금 당장. “나중에”라고 하면 언제까지 유예해야 하나요? 일상의 시간을 펼치는 것은 너무도 지난하고 정치적인 힘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술의 형식은 그것을 펼쳐볼 수 있는 순간을 제공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펼쳐진 시간을 다 같이 감각하고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공연을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예술의 힘을 빌려 가능하다고 믿고, 또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에 비거니즘에서도 제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여기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실천을 펼쳐내”라는 것입니다.

권태현 맞아요. 최선은 항상 유예되기 마련이지요. 예전에 성소수자들에게 외쳤다는 “나중에”라는 구호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만큼 정치적인 말이 또 없다고 느껴지네요. 오늘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권태현_춤in 편집위원, 큐레이터 | 사진 오창동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FAC 문화예술공간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교육센터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예술청 / 대학로센터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 대학로극장 쿼드
- 기타 문화행사

※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은 지원사업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문화 예술 행사를 폭넓게 홍보하는 공익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신청 및 더 많은 정보 확인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Mon	Tue	Wed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정희정>(~10. 9) ● 전시 <Food and Drink>(~10. 3) ● 전시 <정거장>(~10. 3) ● 전시 <청계천에서 보고, 놀고, 산다>(~10. 3) ● 축제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2023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10.28) ● 공연 <금빛 바람이 불다> ● 공연 <자화상> ● 연극 <부산 갈매기>(~10. 9) ● 뮤지컬 <나무, 물고기, 달>(~10. 12) ● 연극 <부정>(~10. 16)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조율하는 퍼즐>(~10. 5) ● 전시 <노 트레이스>(~10. 5) ● 뮤지컬 <우리의 마지막 순간들>(~10. 5) ● 공연 <장사익 소리판> ● 연극 <엔택트 커넥션>(~10. 16) ● 연극 <사랑의 비밀>(~10. 22) ● 연극 <세인트 조앤>(~10. 30)
<p>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베크트>(~10. 10) ● 공연 <루멘첼버콰이어 정기연주회> ● 전시 <이찬주>(~10. 10)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뉴욕으로 간 우리읍내 나나>(~10. 11) ● 무용 <밤의 여왕>(~10. 13) ● 연극 <잃어버린구두>(~10. 16) ● 뮤지컬 <금란방>(~11. 13) ● 전시 <모히또에서 몰딩 한 잔>(~10. 11) ● 전시 <불멸의 크랙>(~10. 11)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 <길 위의 시나위>(~10. 12) ● 전시 <살 돌 기름>(~10. 12) ● 연극 <광>(~10. 12) ● 무용 <춤으로 한 걸음> ● 연극 <이번 생은 참기 힘들어>(~10. 15) ● 연극 <하늘 바람 별 그리고>(~10. 16) ● 연극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10. 16)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진강우 피아노 독주회> ● 행사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11.1)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 <초월>(~10. 23) ● 공연 <폴 인 클래식 콘서트>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안톤체홉 결혼과 사랑>(~10. 23) ● 전시 <eoracle>(~10. 19) ● 연극 <우리집>(~10. 23) ● 국악 <단장>(~10. 29) ● 공연 <스위스 취리히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황지혜 피아노 독주회> 	<p>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더 혹>(~10. 29) ● 연극 <그새끼>(~10. 30) 	<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그대에게> ● 공연 <한재민 첼로 리사이틀> ● 연극 <시장통 사람들>(~10. 30) ● 연극 <덤불 속>(~10. 26) ● 연극 <햄릿광대 난장>(~10. 30)
<p>31</p>		

문화가 있는 날



Thu	Fri	Sat	Sun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입소문난집도있습니다>(~10. 1)● 연극 <우리는 적당히 가까워>(~10. 1)● 공연 <서주희 바이올린 독주회>● 공연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뮤지컬 <오즈의 의류수거함>(~10. 23)●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11. 20)● 공연 <마술피리>(~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움직이는 땅>(~10. 2)● 전시 <Pairing with Shadows>(~10. 2)● 전시 <점사>(~10. 2)● 전시 <발사 후 망각>(~10. 2)● 무용 <맨투맨>(~10., 2)● 무용 <슬댄스 컴퍼니>● 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10.2)
6	7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협력프로그램 <콜타임>(~10. 9)● 신당창작아케이드 오픈프로그램 <공예로 선당, 공예를 산당>(~10. 8)● 공연 <서울 스테이지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 <물리학자들>(~10. 8)● 뮤지컬 <다시, 봄>(~10. 9)● 뮤지컬 <미아 패밀리>(~10. 23)● 연극 <모든 사람은 아프다>(~10. 10)●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느슨한 포옹>(~10. 9)● 연극 <북극곰 이야기>(~1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0은 의심받고 있다>(~10. 8)● 연극 <햄릿, 쓸모 있는 인간>(~10. 15)● 무용 <잠시 놀다>(~10. 23)● 전시 <Imperfect normal>(~10. 8)● 전시 <유령광장>(~10. 8)● 2022 공성장형 예술실험지원 '링크' 과정공유회 <링크LIN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Surface Tension>(~10. 9)● 전시 <머리와 가슴이 달린 배>(~10. 9)● 뮤지컬 <쓰릴 미>(~10. 9)● 연극 <정보>(~10. 9)● 연극 <육상 위 카우보이>(~10. 9)● 연극 <2022 목조연극>(~10. 30)
13	14	1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 <조윤정 바이올린 독주회>● 국악 <강효주의 서울, 장안의 소리>(~10. 14)● 연극 <이것은 사랑이야기가 아니다>(~10. 16)● 연극 <살, 색>(~10. 30)● 전시 <기계 속 유령>(~1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악 <마치마루>● 공연 <추억의 한국가곡>●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협력프로그램 <불이 되는 숨>(~10. 16)● 2022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오픈스튜디오 <쌈브리핑>(~10. 16)● 연극 <단명소녀 투쟁기>(~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내가 애정하는 로봇청소기는 오늘날 거실 지도를 만들어 활보한다>(~10. 15)● 연극 <위선자 따르튀프>(~10. 15)● 공연 <임경원 첼로 독주회>● 공연 <알 디 메올라 재즈 트리오>● 국악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국악 <마치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SEPTEMBER TO REMEMBER>(~10. 16)● 연극 <약국 식후30분>(~10. 16)● 공연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이민영의 음악산책>● 무용 <산조의 재미, 산조의 깊이>● 전시 <Tender Points>(~10. 16)
20	21	2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 <퀴스 아이>(~10. 23)● 연극 <차마, 차가워질 수 없는 온도>(~10. 23)● 연극 <맹>(~10. 30)● 뮤지컬 <디바>(~12. 31)● 2022 비넥스트 페스티벌 연극 <괴물>(~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용 <폴링워드>(~10. 22)● 연극 <전태일>(~10. 22)● 공연 <1 Stage for 1 Player>(~10. 23)●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협력프로그램 <제너레이션: 자화상의 결투>(~10. 23)●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열린 지역 축제(~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Adrian Ghenie>(~10. 22)● 전시 <지금 집이 없는 사람>(~10. 22)● 공연 <올 댓 라흐마니노프>● 공연 <유진박 콘서트>● 공연 <홍진호 첼로 리사이틀>● 공연 <크로키 브라더스>(~10. 23)● 연극 <코마>(~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자매들, 우리는 커진다>(~10. 23)● 전시 <KU SOL>(~10. 23)● 공연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데이비드 러셀>● 공연 <테너 이버리 가곡 콘서트>
27	28	2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 <공감공명>● 공연 <유발이와 친구들>● 무용 <호동>(~10. 29)● 연극 <일단 SF>(~10. 30)● 연극 <시추>(~10. 30)● 연극 <건달은 개뿔>(~11. 6)● 공연 <1 Stage for 1 Player>(~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 <사천의 선인>(~10. 29)● 공연 <이날치 콘서트>(~10. 30)● 전시 <지우고 채우고, 파내어 설치한 덧>(~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Scene of Scene>(~10. 29)● 전시 <Massless Suns>(~10. 29)● 공연 <테너 존노 리사이틀>● 뮤지컬 <드래곤 하이>(~11. 27)● 무용 <유니버설발레단 오네긴>(~11. 6)● 공연 <소프라노 이정윤 독창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 <김도현 피아노 리사이틀>● 전시 <사랑의 작대기>(~10. 30)● 전시 <밤의 기스>(~10. 30)● 전시 <죽음을 위한 노래/삶을 위한 노래>(~10. 30)● 전시 <LEE SEUNG JIO>(~10. 30)● 전시 <기적과 잠꾸러기>(~10. 30)



오만
사건
서울문화재단

축제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서울시 최대 규모 생활예술 종합축제다. 코로나19 이후 움츠렸던 시민의 예술 활동을 재개하고 확산해 시민의 일상을 예술과 연결하고자 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호회 39개팀, 생활예술인 1,000여 명과 함께 시민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특별한 축제를 선보인다.

일시 10월 3일(월) 오후 1시 | 장소 장충체육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58-2014



오만
사건
서울문화재단

공연 <서울 스테이지11>

매달 첫째 목요일 오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예술공간 콘서트 <서울 스테이지11>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 공간을 무대로 클래식, 무용, 북 콘서트, 국악, 재즈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일시 10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58-2026



오만
사건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오픈프로그램

<공예로 신당, 공예를 산당>

입주작가들의 공예 기술을 활용한 11개의 창작 클래스와 우수한 공예품을 합리적 가격에 판매하는 아트마켓이 열린다. 칠보 플레이트 만들기, 나만의 색으로 도자기 만들기, 자개를 활용한 레진 그림책 만들기, 팝업카드 만들기, 도자 화병 만들기, 나만의 캐릭터로 아트토이 조형 만들기, 나뭇결을 살린 옷칠 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시 10월 6일(목)~8일(토) 오전 11시~오후 8시 | 장소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커뮤니티룸, 아트마켓, 갤러리 등 | 참가비 프로그램별 상이(사전 예약 필수) | 문의 02-2232-8831



오만
사건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느슨한 포옹>

금천예술공장 13기 입주작가의 작품과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설치, 영상, 미디어아트, 입체, 평면 등 작가 16인의 작업실을 개방하고 작품 이면의 일상을 공개한다. 금천예술공장은 글로벌 미학과 로컬의 지역성을 실험하는 국제 장기 레지던스이자 아트팩토리형 스튜디오를 지향하는 신개념 예술공장이다.

일시 10월 7일(금)~9일(일) | 장소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 문의 02-807-4800



서울문화재단

2022 공성장형 예술실험지원 '링크' 과정 공유회 <링크LINK-ING>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성장형 예술실험지원 '링크' 참여 예술가의 작업 과정을 공유하는 행사다. 참여예술가 20명(팀)의 전시 11회, 공연 8회, 책 발간 2건 등의 작업을 선보인다.

일시 10월 14일(금)~12월 9일(금) | 장소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33-7217



오만
사건
서울문화재단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협력프로그램 <콜타임>

극단 생활 12년 차 여배우 범순, 이제 막 연극을 시작한 페미니스트 조연출 은호. 두 사람은 한국 근대희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천재 극작가 이진오의 <단아는 왜 20세기에 몸을 던졌나>를 공연하고 있다. 범순이 대사를 틀려 공연을 말아먹은 다음 날, 두 사람은 콜타임보다 1시간 일찍 극장에 도착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천둥과 벼락이 친다. 그리고 이제 더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일시 10월 6일(목)~9일(일) |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 입장료 3만 원 | 문의 070-4185-4527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협력프로그램 〈불이 되는 숨〉

장수미(무용)와 신빛나리(영화)가 진행중인 〈변형의 미디어인 불/몸〉에 관한 공동예술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두 예술가는 인간의 몸에서 '파괴'와 '창조'가 교차-충돌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창발하는 새로운 시간의 조형 방식을 발견하고자 한다.

일시 10월 14(금)~16(일) |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퀘드 |
입장료 1만원 | 문의 070-4185-4527



2022 비넥스트 페스티벌 연극 〈괴물〉

2022년 비넥스트 BENXT 공연예술 분야 선정작 〈괴물〉이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에서 초연한다. 연극 〈괴물〉은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모티프를 얻어 제작됐으며 '별종'이라는 말로 사회의 경계 밖으로 밀려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일시 10월 20일(목)~30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7시
(※월요일 휴관) | 장소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
관람료 3만원 | 문의 070-4647-0171



2022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오픈스튜디오 〈썩브리핑〉

한 해 동안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지원한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양성교육 참여 예술가의 쇼케이스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일시 10월 14일(금)~16일(일) | 장소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및 인근 | 문의 02-3437-0083



공연 〈1 Stage for 1 Player〉

연극, 무용, 클래식, 스탠드업 코미디, 스트리트댄스 등 장르 불문 오직 한 명의 플레이어가 오롯이 하나의 무대에 선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5층 프로젝트룸이 공연장으로 탈바꿈한다.

일시 10월 21일(금)~23일(일), 27일(목)~30일(일) |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5층 프로젝트룸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58-2177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협력프로그램 〈제너레이션: 자화상의 결투〉

78세의 장과 23세의 위그를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몸, 그들의 경험, 그들의 세대다. 그 중간에 있는 안무가 파브리세 라말린곰은 그들의 대립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쟁과 상보성 사이의 관계를 그린다.

일시 10월 21(금)~23(일) |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퀘드 |
입장료 3만원 | 문의 070-4185-4527



행사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국내외 전문가 포럼, 서울예술교육 대표 프로그램 공개강좌, 아카이브 전시 등을 통해 서울 예술교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스티벌이다.

일시 10월 17일(월)~11월 1일(화) |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785-3191

오만 서단과 자단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열린 지역 축제>

양천, 강서, 영등포 지역의 예술가와 함께 전시, 공연,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열린 지역 축제가 서서울 예술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일시 10월 21일(금)~23일(일) | 장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문의 02-2697-0016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연극 <덫속>

덫 숲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시신, 포청은 목격자와 용의자들을 심문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증언과 자백, 진술로 인해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데...

일시 9월 28일(수)~10월 26일(수) | 장소 경계없는예술센터 | 관람료 1만 원 | 문의 02-6080-2757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연극 <2022 옥조연극>

<옥조연극>은 기억과 존재를 의미하는 옥조를 중심으로 다섯 남녀와 그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한 명의 등장인물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나 자신과 타인 속에 있는 공간, 그것을 흔들고 지나가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놓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저장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다.

일시 10월 9일(일)~30일(일) |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 | 관람료 4만 원 | 문의 010-5619-1033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연극 <단명소녀 투쟁기>

내 안에서, 어쩌면 밖에서도 들려오는 '죽으라'는 목소리를 향해 칼을 빼 든 소녀가 여기 있다. <단명소녀 투쟁기>는 연명담을 재해석해 젊은 여성들을 자살로 내모는 것들, 어쩌면 죽음보다 더 나쁜 것들에 맞서 싸우는 두 소녀의 연대를 보여준다.

일시 10월 14일(금)~23일(일) | 장소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 관람료 3만 5천 원 | 문의 010-2069-7202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연희극 <북극곰 이야기>

소꿉놀이처럼 연희자 혼자 몸과 인형, 탈, 의상, 소품을 다양하게 활용해 여러 역할을 맡는 1인 다역 연희극이다. 발에 탈을 씌워 노는 전통연희극 <발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다양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신체탈+인형'을 개발해 창작 국악과 함께 이야기꾼(산반이)이 이야기를 풀어간다.

일시 10월 7일(금)~9일(일) | 장소 서울돈화문국악당 | 관람료 4만 원 | 문의 010-6464-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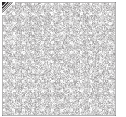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공연 <스위스 취리히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스위스의 신선한 바람을 몰고 취리히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7년 만에 내한한다. 90여 명의 젊은 연주자가 들려주는 웅장하고 생동감 넘치는 연주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등을 들려준다.

일시 10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롯데콘서트홀 |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문의 02-780-5054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연극 <햄릿광대 난장>

첩첩산중 달빛마저 구름에 가린 어느 밤. 깊은 구덩이를 파는 사내가 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굴러떨어진 큰 봇짐을 멘 남자. 수탉이 울기 전까지 아버지와 아들, 햄릿의 이야기가 하나둘 흘러나온다.

일시 10월 26일(수)-30일(수) | 장소 대학로 선돌극장 | 관람료 3만원 | 문의 010-9068-9441



구로문화재단 Guro Cultural Foundation

행사 <제3회 틴즈미디어페스티벌>

10대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청소년이 기획, 제작한 영상 콘텐츠 상영회와 시상식이 진행된다.

일시 10월 15일(토)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 | 장소 구로 청소년문화예술센터 | 관람료 무료 | 문의 02-6101-0778



구로문화재단 Guro Cultural Foundation

공연 <국악의 품격>

해설과 함께하는 흥겨운 영동 난계국악단의 국악관현악 공연이다. 오류 풍류 시리즈 시즌2로, 국악관현악 '요족무곡', 국악가요 'Let me fly', 국악관현악 'Flows of K', 국악관현악 '어머니와 고등어', 모듬북 협주곡 '타' 등을 연주한다.

일시 10월 1일(토) 오후 4시 | 장소 오류아트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14-7961



구로문화재단 Guro Cultural Foundation

공연 <날말공장나라>

찾아가는 유랑극단의 <날말공장나라>는 이야기꾼이 전하는 '말'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이 가득 묻어나는 공연이다. 돈을 주고 날말을 사서 삼켜야만 말할 수 있는 나라의 이야기로, 말에 대한 소중함과 말보다 더 중요한 진실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일시 10월 28일(금) 오후 7시 | 장소 오류아트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14-7967



구로문화재단 Guro Cultural Foundation

연극 <물리학자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창작플랫폼 사업으로, 천재 물리학자 뫼비우스와 그를 포섭하기 위한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해학극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이내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세계의 파멸을 다루며 과학의 가치 중립의 필요성,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극 중 인물의 대립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한다.

일시 10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8일(토) 오후 2시 6시 |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2029-1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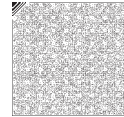


서초문화재단 Seocho Cultural Foundation

2022 재즈 페스타 <Fall in Jazz>

가을 시즌에 맞춘 재즈 공연이다. 총 5팀이 무대에 오르며 청년예술인 육성 및 공연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연주자들로 라인업해 올가을 재즈로 서초를 물들인다.

일시 10월 6일(목), 10월 13일(목), 10월 20일(목), 10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대상 8세 이상 | 관람료 7천 원 | 문의 02-3477-2805, seocho.or.kr



서초문화재단*

여행에세이 토크 콘서트 〈서초에서 시작하는 여행〉

정여울 작가가 들려주는 여행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다. 허희 문학평론가가 진행하며 권정구와 베르디아니 앙상블이 함께한다.

일시 10월 26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대상 8세 이상 | 관람료 무료(홈페이지 사전 예약 필수) | 문의 02-3477-2805, seochocf.or.kr



서초문화재단*

전시 〈바람이 불었다. 숲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언어를 주제로 회화와 음악의 융합을 보여주는 전시다. 김윤섭이 기획하고 유용성, 정지현이 참여 작가로 함께한다.

일시 10월 7일(금)~11월 5일(토) 화~일 오전 11시~오후 7시 (※월·공휴일 휴관) | 장소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대상 전체관람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seoripulgallery.com



서초문화재단*

전시 〈Welcome Generation〉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4주년 기념 하이라이트전으로, 서초구와 예술의전당의 첫 번째 협업 프로젝트다.

일시 10월 14일(금)~30일(일) 화~일 오전 10시~오후 7시(※토, 월, 공휴일 휴관) |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대상 전체관람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seochocf.or.kr



연극 〈당신은 아들을 모른다〉

어느 날 미옥의 고등학생 아들 진우가 아이들과 아이 엄마를 차로 치어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미옥은 그저 착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들이 끔찍한 계획 살인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일시 9월 16일(금)~10월 2일(일) 화~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3시 |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대상 만 13세 이상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10-5818-4597



서초문화재단*

전시 〈오색정원〉

인류의 안녕을 소망하는 민화 전시다. 신형록이 기획하고 오밀희가 참여 작가로 함께한다.

일시 10월 4일(화)~11월 25일(금)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관) | 장소 삼산기념문화센터 B1 서리풀 휴 갤러리 | 대상 전체관람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seochocf.or.kr



다원예술 〈미술관-탄소-프로젝트〉

다원예술 〈미술관-탄소-프로젝트〉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고민할지에 대해 성찰하는 다학제 프로그램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나의 전시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전시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개별 15개의 프로젝트(발표, 토론, 워크숍 등)를 도출해 여러 논의를 진행한다.

일시 8월 19일(금)~10월 30일(일)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지하 1층 MMCA 다원공간 | 관람료 4천 원(서울관 통합권) | 문의 02-3701-9500, mmca.go.kr

2022

09 10 11

2022 아트
페스티벌 서울
ARTS FESTIVAL
SEOUL



www.sfac.or.kr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독자 엽서 링크
url.kr/wgl4zd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북서울미술관, 블루스퀘어,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 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중앙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합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독자 엽서

김하은 님(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 성북구청에서 만났습니다. 매달 비치해 주셔서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윤중강의 국악 실록'을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악이 뭔지도 잘 모르
고 그저 우리나라 음악이겠거니 했거든요. 조선 시대부터 민간 춤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국악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쓰레기, 이를테면 버리는 옷이나 양말, 페트병 등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전시
하는 자원 순환 전시 등을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위험
도 알리고, 쓰레기를 활용한 예술 작품을 통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달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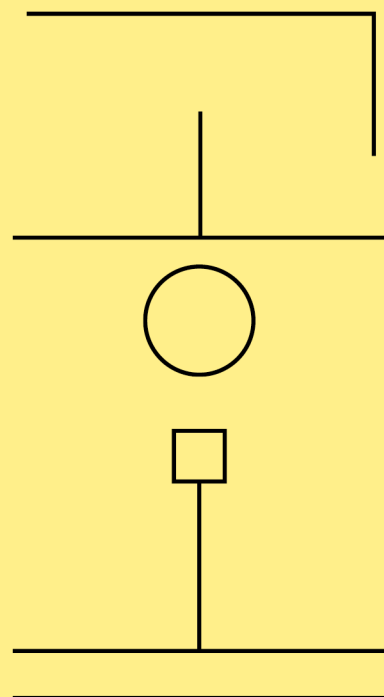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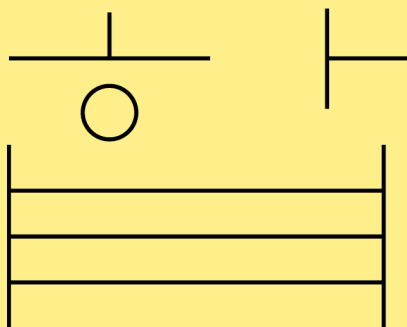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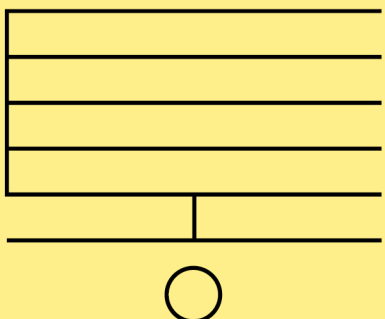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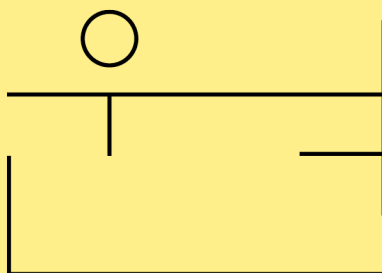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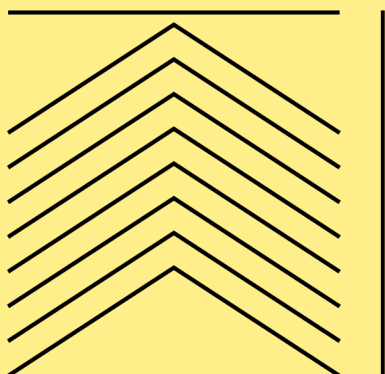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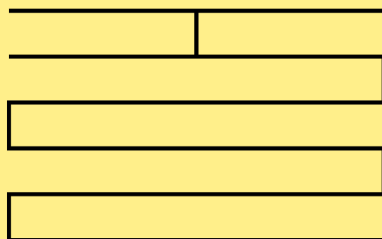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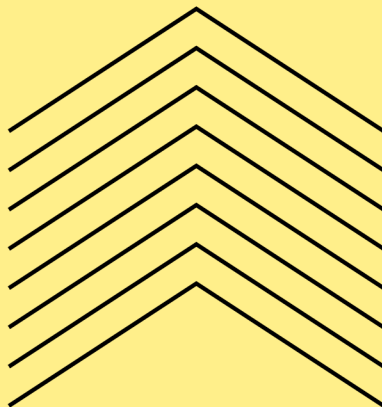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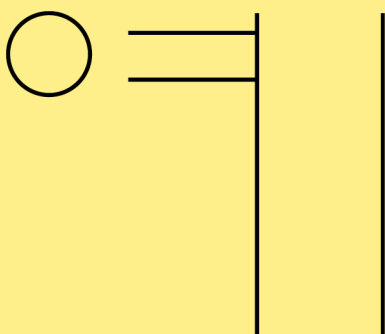
월요일 야근은 훨씬 더 고된 것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giocosso, 즐겁게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마음의 사운드를 볼 수 있는 가을이기를!장보영 객원 기자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장영수 객원 기자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사업설명회
2022.10.13.(목) 오후 2시
시민청 태평홀
유튜브(스팍TV) 동시 송출

신청방법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SCAS.KR

접수기간

2022.10.4.(화) — 10.28.(금)
오후 6시
원로예술지원, 창작공간 입주공모는
기간 별도 확인



두번째달 <달빛이 흐르는 가을>(서울 스테이지11) | 콘서트 | 2022

테마 토크

사운드아트

이슈 1

제1회 서울문화예술포럼

이슈 2

202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문화인

소설가 김연수

10월의 서울문화매뉴얼